



時計塔

SIGETOP



2017년 7월 20일 발행

서울大學教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4권 3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발행인: 韓承信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金靜雅 李善姬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就任辭

신임회장 한 승 신 (76)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서울의대 북미주 동문 여러분, 저는 2017-2018년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장으로 일하게 되어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1972년 이광수 선배님을 초대 회장으로 시작한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가 이제 벌써 설립 후 45년을 맞이합니다. 5년 후면 동창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뜻 깊은 시기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를 온 정성을 다하여 설립하고 발전 시켜 오신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동창회는 이제 1200명의 회원, 34차에 걸친 수준 높은 학술대회 개최, 모교 학생 및 미주 한인 2세들을 위한 장학사업,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다른 한인 단체들의 모범이 되는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창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인석 서운석 이견일 전회장님들과 전회장단님들의 젊은 세대 동문 육성을 위한 특별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75년 이후 졸업생으로는 처음으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중책을 맡겨 주심은 무엇보다도 지난 수년간 학술위원장으로 일한 경험과 젊은 세대 동문들과의 인맥 형성을 바탕으로 많은 젊은 세대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창회 참여와 기여를 꾀하고 기존 선배동문님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량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창회원들 대 부분은 이미 은퇴하셨고 74년 이후 미주로 일하러 오는 동문들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장래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존립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에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던 미주 동문 이주가 2000년도 이후부터 좀 활발해 지기 시작하여 이들이 미주에 잘 정착하고 동창회에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되면 우리 동창회의 앞날이 어둡다고 만은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동창회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이고 그동안 선배님들이 잘 해 오셨던 친목, 화합, net work 형성을 젊은 세대 동문들에게 확장 시키고 그들이 동창회에 나와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의과대학 학생시절부터 미국 유학 및 이주에 관심이 있는 동문들을 위해 Web site 및 Symposium을 통하여 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mentor가 될 수 있는 미주 동창회원들 list를 작성 및 제공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젊은 세대 육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 하였지만 우리 회원들의 대부분이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시는 점을 감안할 때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창회가 되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해야 참된 동창회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계탑과 새로 작성한 Web site (snucmaaus.org)를 심본 활용할 생각입니다. 새로 마련된 Web site는 서운석 전회장님의 적극 지원 하에 주광국(68), 남명호(81) 동문님들의 노력으로 신설 되었습니다. 흔히 Web site는 젊은 세대들만을 위하여 마련되었고 기성 동문들은 계속 시계탑을 구독하면 동창회 일은 다 해결 될 것으로 오해 할 수 있겠으나 두 매체의 장단점을 다 살려 우리 모든 동문들의 생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운석(시계탑 편집장), 주광국(Web Site Chair) 두 동문님들과 자주 상의하여 우리 동창회에 꼭 알맞는 두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Web site에는 주광국, 남명호 동문님들의 수고 덕분에 지난 수년 간 발간된 시계탑과 지난 2년간의 학술대회 CME Presentation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성동문들에게 유익한 Non-CME Presentation도 수록할 예정입니다. 올 봄부터 Information Technology에 조예가 깊은 송경민(09) 동문과 동창회 총무로 일 하실 강민중(91) 동문이 Web site committee에 join해 주셔서 우리 Web site가 더 사용 편리하고, 내용 풍부하고 보기 좋은 Web site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계속 좋은 원고들을 시계탑에 보내 주시고 Web site도 적극 이용하여 동기 소식, 동문들의 동정 및 활동상황,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교류해 주시고 또 동창회를 위한 좋은 제안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면과 Web Site를 통한 교류가 편리한 점은 있으나 동문들이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운동이나 식사를 같이하며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고 또 내일을 기약하는 대화와 우정 나눔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동문들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동기회, 지부회 모임을 권장하고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 동문들은 미국으로 이주한 동기 숫자가 너무 적어 동기회 모임이 이루어 질 수 없거나 모임이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젊은 세대 동문들을 위해서는 동기 대표 대신 대표를 5년 단위로 선출하거나 전공과목 중심의 모임 (예를 들어 National Specialty Meeting중 서울의대 동문들을 위한 모임)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봉사활동입니다. 많은 우리 동문들이 은퇴 생활을 하면서 또는 active 의료인으로서 바쁜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창회 차원 이외에도 상당수의 동문들이 개인적으로 미개발국가인들이나 빈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등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그들의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 동문들에게 그들의 활동 사항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박찬형(62) 동문이

離任辭

회장 이 견 일(68)



서울의대 북미주 총동창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지난 3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LA 근교 City of Industry에 있는 Pacific Palms Resort에서 제34차 학술대회와 동창회 총회를 성공 적으로 치루어낸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도와 이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열과 성을 다해 힘써주신 임원진과 사모님들, 특히 부회장인 변영석, 김성환, 최광희 제 선생님들과 재무 김명원 선생님과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총무인 김홍서 동문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그 자리를 대신 맡아 아주 크게 수고 해주신 김성환 부회장의 사모님 이신 김영애 여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학술대회를 초기부터 계획, 조직, 운영하신 한승신, 이현영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Green Project 쪽을 맡아 수고 해주신 정영태 선생님 수고 하였습니다. Non CME program을 짜고 계획하고 연사들을 초청하신 김명원 선생님 수고 하였습니다. 만찬장의 사회를 맡아 동문들을 즐겁게 만드신 명사회자 백승원 선생님 수고 하였습니다. 골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신 이성호, 고창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Paul Getty museum 견학을 이끄신 Mrs. 김홍서 수고 하였습니다. Joshua Tree National Park 관광단을 이끄신 신홍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진전을 주관하신 백길영, 조의열, 홍광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학술대회와 Non CME 연사로 멀리 한국에서 부터 날아오신 조승렬, 이흥규, 홍승수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에 관련된 모든 출판물을 마련하신 황창근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회 사무실의 보배이신 Mrs. Jamie Kim과 그 부군 김성근 사장님 정말로 수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가주 지역 여러 동문들의 협조 없이는 이 큰일을 치루어낼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다음 회장의 막중한 임무는 한승신 선생님에게로 넘어 가는데 저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정말로 유능한 회장님에게로 바톤이 이어지게 된 것은 우리 동창회의 큰 축복 입니다. 감사 합니다.

35th Annual Medical Convention

세계 문화의 중심 뉴욕 맨하탄과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메리웃 호텔에서 제35차 북미주 동창회 학술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June 20 ~ 24, 2018

Teaneck Marriot at Grenponte
Teaneck, New Jersey



시도하고 있는 미주한인들을 위한 Stomach Cancer 조기 진단 및 치료 Campaign, 미국 내의 한인 또는 Asian들이 미국인들(미국 의료인들을 포함)의 이해 부족으로 당하고 있는 불이익(health care disparity) 등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는데 다른 Asian 단체들이나, 주미 한국대사관, KAMA (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등과 협력하여 학술적 연구 및 홍보활동에도 우리 동창회가 앞장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창회의 제일 큰 행사인 제35차 학술대회 및 동창회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뉴욕 근교 Glenpointe Marriott Hotel at Teaneck(New Jersey)에서 가질 것을 알려 드립니다. 예년과 같이 질 높은 Golf, CME meeting, Non-CME meeting, post-convention tour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의 예를 보면 CME Session은 젊은 동문들이 주로 참석하고 Non-CME Session은 기성 동문들이 주로 참여하여 젊은 동문들과 기성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림이 애석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점을 좀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기성 동문들과 젊은 동문들에게 다 흥미가 있는 Topic (예: 정신 건강, 치매 예방, Arthritis 예방 및 치료 등)들을 선택하여 CME, Non-CME session을 합친 meeting으로 2-3 시간의 General Session을 가질까 합니다. 부디 Annual Convention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동기 및 선배 동문들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2017 제2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서부: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12시

김태웅(63) 이건일(68) 김명원(68) 최철(68) 이현령(68) 변영석(69) 김성환(71) 고용규(73) 김동훈(77)

동부: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ew Jersey, 오후 3시

채규철(59) 이희경(61) 한기현(63) 최준희(64) 허선행(64) 최순채(66) 최영자(66) 서운석(68) 문대욱(73) 한승신(76) 이선희(81)

Proxy:

김용식(55) 이만택(58) 전희근(60) 송영두(62) 김택수(63) 김태환(64) 신두식(64) 이명희(66) 노영일(68) 신규호(68) 신용계(68) 신희식(68) 주광국(68) 임용규(69) 강창홍(71) 오동환(71) 이원택(71) 박찬호(72) 오용호(72) 김원정(75) 전경배(75) 최광희(76) 남명호(81) 심인보(83) 신원석(88) 오무연(89)

1. 동서부의 Proxy와 참석 인원 점검 후 이건일 회장이 개회 선언함.
2. 지난 제2차 이사회(2017년 3월 2일) 초록 낭독 후 수정없이 동의와 재청으로 통과하였음.

3. 성공적인 학술대회(2017년 3월 1일에서 3월 5일간)와 재정적인 흑자로 45회기를 마무리 할수 있었음을 임원진과 잘 내조하신 사모님들, 많이 참석하시고 재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은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이건일 회장의 인사가 있었음.

4. Unfinished Business; None

5. Secretary's Report; None

6. Treasurer's Report; 김명원 재무가 PPT로 발표함.

회기간 총 수입이 \$280,679이고 총 지출은 \$246,365.58, \$34,313.42의 흑자가 있었음.

이중 \$10,000은 Scholarship Committee 지원금으로 fund management로 돌리기로 하였고, \$5,000은 Green Project Committee 지원금으로 할당하기로 함.

7. Reports from Committees;

-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 Financial Advisor John Back, CFP reported with PPT, Current Values by 06/14/2017는 \$257,986이고 FMC 명의로 Annuity에 Invest 되어 있어 quarterly \$5,687의 배당금을 Scholarship Committee 지원금으로 사용 될 것으로 앞으로 10년간 이 배당금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By-laws Committee Report by Chair 문대욱(73); Brought up from the previous meeting minutes (1차 대의원회 01/07/17, 2차 이사회 03/02/17)

Revision of the current By-laws(Edited for clarity and approved by By-laws Committee on 05/05/15) as follows;

(*to add, () original to be revised) Article X Committees

1. There shall be ((eleven))*thirteen Standing Committees, designated ----- Article XI Standing Committees

*12. Charity Committe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harity Committee to promote charitable activities for the well-being and health of our community. The committee will

operat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any activities being subject to the approval of such Board. The committee will determine which charitable activities to promote based on the need for such activities. The Charity Committee shall consist of four members who reside in different reg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have demonstrated prior commitment to charitable causes.

*13. Silver Project Committe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ilver Project Committee to 1) communicate with senior members of alumni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all alumni activities, 2) communicate and assist in organizing alumni events for senior members, 3) plan to accommodate and serve the increasing numbers within our organization.

- Nominating Committee Report by Chair 서운석/노영일, 그간 동창회 일을 많이하고 회비를 충실히 납부한 분을 위주로 12명을 추천하고 이사회에 인준을 받았음;

Term July 1st 2017 to June 30th 2020, 김태웅(63) 강창홍(71)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조세진(71) 오영호(72) 고용규(73) 전경배(75) 김동훈(77).

July 1st 2017 to June 30th 2018 김홍서 자리에 심원섭(73),

July 1st 2017 to June 30th 2019 박인영 자리에 백승원(79).

- Publishing Committee Report by Chair 서운석(68);

(1) 시계탑 전면 Color 발행이 계속 된다.

(2) 원고기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성공적이던 제2회 우수작품상은 계속된다. 제1회 작품상은 10월호에 발표된다.

(3) 타계하신 동문의 배우자에게 계속 시계탑이 우송된다.

7월 1일 편집회 참석위원, 노용면(55), 이희경(61), 허선행(64), 서운석(68), 서인석(73), 김정아(76), 이선희(81), 황창근(유니온 프린팅 사장)

- Charity Committee Report by Chair 최영자(66)

2016-2017회기에 모인 fund가 \$2,000에 그쳐서 NYCOCO에 \$2,000을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고 새 회기에는 New Members로 모금 운동을 활성화할 예정임.

- Scholarship Committee Report; members, 오무연(89, Chair), 이선희(81, Assoc Chair), 서인석(73), 김태근(01)

Awardees of Scholarship of SNUCMAA of NA(also known as Green Project Scholarship), 박제훈(2014-23214), 김주연(2012-13195), 김지선(2014-23173), 유호선(2013-15049), 최민아(2014-23180); Awardees of Taewoong Kim, MD Scholarship, 정용욱(2015-12247), 김윤진(2014-14237)

- 2017년도 해외의학연구 미주지역 27명중 대의원회에 이어 있을 Evening Program으로 Retreat에 참석하는 12명의 학생들의 소개와 한승신 신입회장의 인사말, Faculty Panel; 강민중(91), 안경흠(92), 이태훈(02), 조수정(03), 김용정(85)의 소개가 있었음.

Summer clerkship retreat의 Program 내용 등은 Scholarship Committee chairman이면서 이번 retreat 회의의 Moderator인 이선희(81)의 PPT Presentation이 이어졌음.

-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 강현석(00),

시카고에서 ASCO회의 참석 중 젊은 동문들과의 모임이 있었다는 보고와, 강현석 Chair의 New Haven 모임 참석, 북가주에서 최태웅(02)의 환송회 겸 신동인(02), 안상민(02)과의 모임을 사진 영상 소개가 있었고, 다음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man으로 이선규(89), Co-Chair, 장세균(01) 소개를 PPT로 보고함.

- Website Committee Report by Chair, 주광국(68) Presented with PPT;

새로운 젊고 유능한 동창회원인 송경민(09), 강민중(91) 동문이 들어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서면 보고와 함께 그 동안 발간되었던 시계탑을 미주동창회 website(snuccmaaus.org/com)에 작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2005년부터 지난 12년간 발행된 시계탑 전부 홈페이지에 올렸고 3월에 있었던 제34회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 내용과 사진들을 모두 실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동문들의 수필, 시, 여행기 등 사는 이야기들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글들을 동창회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snuccmaaweb@gmail.com)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New Business; 이건일 회장이 차기회장으로 남가주 Chapter 회장직을 2년 6동안 성공적으로 끝내는 김동훈(77)동문을 차기 회장(07/01/18-06/30/19)으로 추천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음.

9. Adjournment; 폐회 동의와 재청으로 이건일 회장이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 말씀으로 폐회 선언함. - Prepared by 제2부회장 김성환(71)

시계탑 편집회 초록

일시: 2017년 7월 1일(토요일)

장소: Double Tree Hotel, New Jersey 동부시간 오후 2시

참석자: 노용면 이희경 허선행 서운석 서인석 김정아 이선희 김정아, 황창근 인쇄소 사장, Jamie Kim 미주동창회 사무장 (김병석, 서량, 이원택, 나두섭, 박은경, 사정상 불참)

재무보고에 이어서 서인석 님의 경사인 아드님의 신부서품에 대한 축하가 인사가 있었다. 이번 7월호를 포함해서 지난 1년간에 시계탑에 발표된 원고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제1회 우수 작품상(사진부문 제외)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2회도 계속된다는 것을 합의했다. 그동안 박은경 대담 시리즈가 새로운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준다고 판단하여 대선배님들의 대담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김정아 님의 제안에 모두들 동의했다. 우리 신문은 전면 컬러로 계속 발행되며, 동문들의 타계 후에도 배우자들에게 시계탑이 계속 발송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지난 3월 미주합춘공로상을 수상하신 노용면(55), 이희경(61), 정정수(62) 세 분이 상금전액이거나 그 이상을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에 기부한 것을 시계탑에 올리기로 했다. 대학병원 광고는 지난 한 번 게재되며 요청이 있을시 다시 게재하기로 했다. 충분히 들어온 원고 교정시간과 편집에 대한 의논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이사회



가 서부의 김성환(41대 회장) 부부의 수고로 영상으로 연결되어 3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편집회는 9월 30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모교 학생들 12명이 여름 임상실습을 위하여 미국에 도착하여 바쁜 중인데도 서인석(73) 42대 회장과 장학위원회 이선희(81) 교수의 인솔로 인사를 왔으며 함께 선배님들과 귀중한 친교시간을 나누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희망에 가득한 포부와 심심한 젊음과 뛰어난 재능을 겸비한 참으로 자랑스러운 후배들이다. 우리 미주동창회가 이런 후배들에게 앞으로 과연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를 토의했다. 특히 제일 수고를 많이 한 장학위원회의 이선희(81) 교수와 한승신(76) 신입회장, 김용정(85), 강민정(91), 조수정(03) 동문들은 폐널시간을 더 가졌으며 식사 후에도 저녁 10경까지 도움이 되는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편집위원들과 같이 찍은 사진으로 모교 4학년 학생 12명과 이날 합석한 대부분 북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하신 이사 동문들의 명단이다.

미주 동문들 명단: 노용면(55) 채규철(59) 이희경(61) 한기현(63) 최준희(64) 허선행(64) 최영자(66) 최순채(66) 문대욱(73) 서인석(73) 한승신(76) 김정아(76) 이선희(81).

학생 명단은: 박제훈(학생대표) 유용준 최세진 유호선 최민아 양한별 장서운 한해지 지성인 김주연 여무한 허찬미.

(기록: 편집인 서운석)

버지니아 지부 소식

5월 6일 - 서울대병원 암병원장 김태유 교수 부부 환영 모임

2017년 5월 6일(토요일) Vienna, Virginia에 있는 우래옥에서 서울대학병원 암병원장인 김태유 교수 부부의 방문 환영모임이 있었다.

암병원은 연건동 캠퍼스 서쪽 치과대학병원 방향에 위치하며 외래 항암치료와 그와 관련된 입원환자를 다루고있다. 김교수의 담당과목은 Medical Oncology이다.

이 모임에서 참석한 선후배 동문들에게 우리나라 각 암병원에 대한 소개를 했으며 참석한 선후배동문들과 국내외 의료변화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유익한 의견교환을 나누었다. 특히 의료보험제도하에서 변화되어가고 있는 각종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여흥으로 김진수 회장이 자신이 힘든 산부인과를 전공하면서도 즐기던 골프에서 어떻게 아홉번이나 Hole In One을 했는지 그 요령을 설명했다. 또한 피부과 전문의인 김태유 원장의 부인은 참석하신 부인들에게 피부관리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귀한 선물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김 원장은 서울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와 의과대학 동기이다.



사진에서 왼쪽에서 부터 김태유(86) 암병원장, 서윤석(68), 박인영(75), 김진수(66) Chapter 회장, 신원석(88) 동문들이다.

5월 17일 - 정기총회 - 신입회원 이종오(64)동문

회장 김진수(66), 부회장 겸 총신 총무 조병선(71) 박사가 이끄는 Virginia Chapter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7일 Annandale 한식당 "설악가든"에서 열렸다. 이날 동창부부 총 26명 정도가 참석했다. 신입회원에는 Orlando Florida에서 12년 살다가 이사 온 이종오(64) 동문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이 동문은 우리나라 문학과를 뛰어들어 놓은 "이광수를 위한 변명"이라는 저서를 10여년 전에 출간했으며 은퇴 전에는 사회정신과를 전공한 교수이자 전문의 이다.

그리고 이날 국내외로 잘 알려진 Vascular Surgeon으로 아직도 활동하는 이병봉(63) 동문도 참석했다. 특기할 사항은 57년-59년 졸업하신 네 분 동문, 한달수, 임종식, 나길진 그리고 김용덕 동문님이 대부분의 후배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것이다. 이분들 중에서 자기 소개시간에 임종식(57) 동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서 모든 분들의 관심을 끌었다. 불치의 상처로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생각해도 그야말로 명의 중에 명의라고 생각되는 한방의사가 고름이 줄줄 나오는 다친 Hip 상처에 가루를 붙여넣어서 병이 완치됨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체험담을 털어놓았다. 양의가 못 고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병을 이렇게 치유받은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의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전종희 교수님의 도움으로 Sabin Polio Vaccine 연구소를 비롯하여 1957년경 미국대학에서 주는 의학연구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후 평생 반려자인 아내(Mary Ltyle Rhim)를 만나서 6남매(1명 입양)와 손자 손녀를 낳고 기르면서 의사로서 또 기초의학 연구학자로서 행복 되고 보람있는 축복된 평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여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임종식 동문은 현재도 조지타운, NIH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며 우리 동창회 일과 후배 동문들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남보다 앞서서 나서시는 분이다. 아시다시피 모교 서울의대 학생도서관 건립에도 제일 먼저 기부금을 내신 동문이다.

6월 15일 - 여름 골프 토너먼트 28명 참가 성황리에 마쳐

6월 15일 (목요일) 예정되었던 여름 Golf Tournament가 이곳 Gainesville에 있는 Stonewall Golf Club에서 있었다. Detroit Michigan에서 은퇴 후 이사 온 김희주(68) 동문을 포함하여 남자 20명, 여자 8명이 참석했다. 한동안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가 다행하게도 누그러져 좋은 날씨가 되었다. 고령이거나 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날씨가 고온이면 Hypotension 등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주최측에서 준비한 충분한 음료수 덕분인지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모든 분들이 18홀을 끝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자: Champion Gross 신용계(68), 2등 박동수(71), 3등 김철(68)

근접상: 조병선(71), 고영희(63)

여자: Champion Gross Mrs. 김진수, 2등 Mrs. 조병선, 3등 Mrs. 고영희

근접상: Mrs. 김철, Mrs. 박수용

참석자는: 한달수(59) 나길진(59) 김용덕(59) 고영희(63) 이종오(64) 김진수(66) 이동명(66) 방정화(67) 신용계(68) 서윤석(68) 김진홍(68) 김철(68) 주광국(68) 김희주(68) 김주평(68) 김병오(69) 박수용(69) 박동수(71) 조병선(71) Mrs. 김진수 Mrs. 서윤석 Mrs. 김병오 Mrs. 박수용 Mrs. 고영희 Mrs. 김주평 Mrs. 조병선, Mrs. 김철과 손님 Dr. G. Ahn 이다. 사진 참조바람. (Report 편집인)



68년 동기 소식: 골프의 날 골프의 날 - 미성 서진석을 기리면서

오늘 6월 26일은 미성 美聲 서진석 동문을 기리는 골프의 날이다. Virginia, Stonewall 골프장에는 아침부터 그의 부인이 물과 얼음 그리고 음식을 우리들의 카트에 실어놓고 다른 부인들과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날씨가 좋았고 선선한 바람도 불고 골프장의 상태도 아주 좋은 날이었다. 돌이켜 보니 벌써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7개월이 됐다.

우리 68년 동기들은 이곳 버지니아에 열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지난 오 년 사이에 두 명이 타계하고 이제 아홉 명이 남았다. 이제는 모두 은퇴를 했으며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일주일에 하루, 남자들만 모여서 골프를 친다. 전 부부 계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다. 이렇게 동기들이 정기적으로 모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다. 주 멤버였던 미성은 떠났지만 우리는 계속 모인다.

놀라운 일은 모두들 70대 중반인데 드라이버샷이 나이에 안 맞게 장타들이라는 사실이다. 축복을 받은 일이다. 골프 라운드를 끝내고 다음 순서는 19홀인 한식 레스토랑으로 가서 회포를 푸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은 미성의 묘소에 먼저 들러 인사하고 가기로 계획을 했다. 그래서 라운드가 끝나자 우리는 아내들이 준비해준 연한 노란 장미꽃(인조) 송이를 차에 싣고 29번 도로를 따라 줄을 서서 각자 차를 몰았다. 얼마 후 남북전쟁터 접경지대에 위치한 Manassas의 Stonewall Cemetery에 있는 그의 묘소에 모두들 도착했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묘지 관리소 건물 근처, 남향을 바라보는 양지바른 자리에 그의 묘소가 있었다. 근래에 마련한 석로 된 묘지판은 초록색인데 반질반질하게 깨끗이 닦여져(부인에 의하여) 있었다. 가지고 간 장미를 묘지판 위의 꽃꽂이에 꽂고 미성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동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 대표 정재성 동문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기도는 내용이 분명하고 진솔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짙하게 했다. 신앙인으로 언행이 일치하는 그를 우리는 잘 알지만 그 사실을 하늘도 알고 있으리라.

우리는 1962년 청량리 예과에 입학하여 처음 만난 후 반 세기가 더 지났으니 지난 55년을 함께 살아온 소중한 친구들이다. 해방 전에 태어나서 6.25사변을 거쳐, 학창시절, 4.19, 5.16, 군의관 시절, 월남전, 무의촌, 미국 의사생활 등 파란만장의 희로애락을 같이 보낸 오랜 벗들이다. 그의 무덤 앞에 서니 모든 생명은 유한하다는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아직 남아있는 우리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나 둘씩 결국 예외없이 떠나게 될 것이다. 겸허하게 죽음과 그 후의 미래를 생각해야되는 우리 나이가 아닌가. 미성의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면 오늘 온 우리를 보고 '허허 왔어어, 골프 잘 쳤나벼어, 와서 고마워..' 하면서 좋아하겠지. 잘 다듬어 놓은 골프장의 잔디 위에서 마음대로 배뇨하는 강과 같은 오리들의 살아있는 모습이 오히려 부러워지는 하루들이다. 그래도 음치에 가까운 저들이 급하면 내는 꺽꺽 원 목소리는 미성 서진석 박사가 부르던 그 아름답던 '신라의 달밤' 노래 소리만은 못한 것 같다. 그의 묘소는 조금씩 돌아나는 새털 같은 잔디풀로 덮여지고, 푸른 하늘 아래 온 천지가 따뜻한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글: 68년 버지니아 동기회 자서)

73년 동기 소식

6월 마지막 주말 Central NY Cortland 에서 조용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오인환 동기 집에서 모였다. Mrs. 오의 sculpture들이 넓디넓은 정원 곳곳에 자연과 어울려 운치있게 display 되어 있다. 공방 옆의 barn과 집안 내 지하실에 각각각색의 sculpture들이 빼곡히 차 있다. 몇몇 동우회원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전시회를 가지셨단다. 내년 뉴저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작품 몇 점을 기꺼이 도네이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한 회장님 non-CME 위원장님! Non-CME 연사로 강의는 물론, 전시회도 부탁드려 모든 동문 및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요일 일찍 Cortland CC에서 round를 끝내고 20여분 떨어진 인공호수 옆에 위치한 썸머 하우스로 향했다. 꼬맹이 아이들을 데리고 boating을 즐기며 난생 처음 보았던 쌍무지개에 환호성을 질렀던게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만세기가 지나 버렸다.

시라큐스의 아담한 중국집에서 푸짐하게 저녁을 즐겼다. 느긋하게 디저트를 즐기기도 못하고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6시간을 드라이브해서 온 이계석 동기의 성화에 못이겨 오인환 집을 서둘러서 돌아왔다. wife들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며 마이티 게임을 즐기려니 극락이 어드메뇨!

손자 손녀들과 함께 Cortland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련지 아쉬움을 남기며 아듀~

서인석(73, 대뉴욕지부)

보트 위에서: 윗줄 왼쪽부터 임준형, 이계석, 서인석, 오인환, 방병기 Sculpture와 함께; 왼쪽부터 Mrs. 방병기, 이계석, 임준형, 오인환



북미주 동창회에 답지한 기부금 현황 보고

모교에서 수여하는 제3회 합춘공로상을 수상하신 노용면(55) 이희경(61) 정정수(62) 동문들께서 상금으로 받으신 전액을 (노용면 동문은 동창회 일반기금으로, 이희경 동문은 장학기금으로, 정정수 동문은 Green Project 기금으로) 기부 하셨습니다. 세 분은 모두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과 총무 등으로, 특히 노용면 동문은 시계탑 초대 편집장으로, 이희경 동문은 3대 편집장으로 동창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고 권순홍(61) 동문의 부인께서 시계탑 구독료 5백달러를 보내오셨습니다. 작고하신 동문들의 부인들에게는 빠짐없이 시계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인석(73) 동문 영식 사제 서품 받아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 두 차례에 걸친 총무, 시계탑 편집장, 그린 프로젝트 위원장 등으로 현재까지 동창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서인석(73) 동문의 아들 Patrick Seo가 지난 5월 28일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 편집인

사진: 지역 신문에 소개된 서품 소식과 서품식에 참가한 동문들.



가망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뜻밖에도 이를 후에는 갑자기 상태가 호전되어 호흡기도 떴고 맑은 정신으로 사람도 알아보게 되었고 그간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나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또박또박 따라 하는 기적 같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귀한 축복의 순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선 형의 안색은 평안으로 채워지고 다음 날 아침에는 병실 문밖에 있던 큰 아들을 밝은 표정으로 손짓해 부르며 들어온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인자한 표정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을 보며 돌아온 탕자를 받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후 부활주일 아침 부인으로부터 두 아들과 함께 네 분의 가족이 서로 대화하며 참으로 귀한 가족만의 은혜로운 시간, 사랑과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문자로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병원에서 급격히 상태 변화로 고통 없이 소천 하였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친구의 귀한 한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축복의 관계로 창조하셨으며 죄로 인해 깨어진 이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어 이를 위해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그분의 자녀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선 형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심에 감사드리고 학창시절 친구의 마지막을 함께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사구 학형을 생각하며

김창구 (71, 남가주)

이사구 학형의 갑작스러운 귀천의 소식은 내게 큰 서운함과 슬픈 마음을 주었다. 비록 오랫동안 서로 왕래 없이 서로의 삶에 매여 지냈지만, 지난 늦가을 남가주로 은퇴한 후, 이미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학형을 만날 날이 조만간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주지 않고 먼저 훌쩍 세상을 떠나가셨다. 우리가 모두 이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터이니, 고통 없고 평안한 하늘나라에서 학형을 만나 지나온 이야기를 나눌 것을 기대해본다. 이곳에 남으신 미세스 리와 모든 가족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한다.

내가 이사구 학형을 가까이 알게 된 것은 1974년 미국으로 건너와 Cleveland, Ohio에서 정신없이 인턴, 레지던트 하느라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던 그 시절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사구 학형은 보통 의대생과는 달리 삶을 즐기며 인생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창시절부터 예능 면으로 재주가 탁월해서 딱딱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의대생 시절을 풍성하게 보내었다. 한국에서 대학교 록 밴드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의예과 학생들로 구성된 써니보이스의 가수이자 베이스기타 연주자로, 의대 연극부원으로 폭넓은 생활을 즐겼었다. Cleveland Suburb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 같은 시에 개업하고 있을 때도, 병원 파티에서 반짝이는 무대의상과 기타반주에 팝송을 부르며, 병원 의사와 스태프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지역 의대 동창회, 총 동창회에서도 탁월한 노래 솜씨로 모두를 즐겁게 해 주었다. 특히 학형이 부르던 노래 “친구여” 는 듣는 이들에게 옛 생각이 젖게 했는데, 내 아내는 학형의 그 노래는 한국에서 난다 하는 가수보다 월등하다고 했던 생각이 난다. 그 말에 나도 분발하여 바쁜 중에도 노래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재학 당시 한국에서 유명했던 작곡가 한 분이 가수로 나가면 어떻겠냐고 적극적으로 권했다고 한다. 나는 아직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학형은 이미 가정의학 어텐딩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환자가 많은 의사 중에 한 명이였다. 일찍이 그 시절에 아담한 독립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그 안에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여 우리가 가끔 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면 기타반주를 해 주곤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 후 나는 수련을 끝내고 클리블랜드를 떠났고 연락이 끊어졌다. 15년쯤이 지난 후에 클리블랜드 근처에서 총동창회가 있어서 만나 볼 기회가 있었다. 학형과 부인의 흔쾌한 초대로 집에서 풍성한 동기 파티를 열어 주셨는데, 그 집은 예전 집이 아니었다. 집 안에서 인공 폭포수를 볼 수 있는 집이었는데, 집의 설계는 학형의 생각이었다고 하며, 의학을 결정하기 전에 건축가의 꿈도 고려했었다고 했다. 임상의로 그 지역 사회에서 잘 봉사하고 환자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했었다. 안타깝게도 건강 문제가 생겼고 남가주로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도 은퇴하여 남가주로 이사 왔으니 보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들의 일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 떠나는 것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이라고 말하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했다. 훗날 하늘나라에서 학형을 만나, 하지 못했던 많은 말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영섭(52) 동문 별세

김영섭(52) 동문께서 5월 13일 소천 하시었고, 5월 19일 금요일에 오후 5시에 Jeffrey Naugle Funeral Home에서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이효빈(60) 동문 부인 별세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시는 이효빈(60)동문의 부인이신 Emily Lee께서 지난 7월 16일 별세하셨습니다.

이정국(61) 동문 별세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시고 Pathology를 전공하신 이정국 동문께서 지난 7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최준영(68) 동문 별세

미시간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평생 활동하며, 68년 동문들의 졸업25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동기들의 leader였던 최준영 동문께서 지난 7월 9일 오후 5시경에 병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 김희주/서운석

정경화(76) 동문 별세

오랫동안 San Diego에서 신장내과를 개업하고 많은 환자들에게 정성어린 의료를 베풀어 왔던 정경화(76)동문이 다발성 골수암으로 지난 몇년간 투병중 6월 4일 (토요일) 선종하셨습니다.

화 해

박도선 학형의 애도하며

박동수 (71, 버지니아)

사랑하는 박도선 학형(71)의 소천 받으심을 보며 귀한 한 생애를 살고 하나님 양으로 간 축복받은 친구를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6년의 대학 생활, 30여 년의 미국 생활을 한곳에서 하면서도 왕래가 적었던 친구였지만 마지막 한 주 동안 누구와 보다도 귀한 시간을 나눈 친구라 이 우정이 귀하게만 여겨집니다.

의과대학 시절에는 이를 가나다 순서가 같은 이유로 4년 내내 같은 그룹으로 실험, 회진을 함께하며 도선 학형의 직선적이지만, 성실하고 의리 있는 성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아주 독특한 유머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정신과 회진 도중 저돌적인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학생들 몇이 얻어맞았는데 도선 형의 의외로 길길거리는 바람에 환자를 위시해 학생들도 오히려 웃고 넘어가고 그 후로는 박도선 형이 그 환자의 담당의가 된 일, 학생들의 공포와 회피의 지역이던 TB 병동에 “환자들이 다 약을 먹기 때문에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야.” 라던 교수님 말을 믿고 TB 병동 전담 학생이 되기도 한 일 등을 통해 도선 형의 소박하고 정직한 성품을 기억합니다.

미국에 와서 미군 군의관으로 오래 근무하는 동안, 옳고 그른 것에 중간이 없는 그 성격 때문인지 사회의 부조리, 기회주의, 회색분자 등이 용납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되었던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동서양 철학, 종교를 비교 연구를 하는 교수님을 모시고 만나는 모임 외에는 한인사회, 동창회 친구들 등을 멀리하고 지내던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최근 뇌경색, 소장 괴사, 폐렴 등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감지한 부인의 연락으로 병실을 찾게 되었고 다행히도 박도선 학형 인생의 특별히 축복받은 마지막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던 날이 마침 부활절 고난 주간을 막 시작하는 주말이었는데 도선형은 수술 후 호흡기에 달려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병간호에 매우 쇠약해진 부인이 병상을 지키고 잠깐씩 왔다 가는 큰아들도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깨어졌던 부자 관계를 알게 되었고 큰 아들은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북미주동창회 신설 Web Site 안내

snuclmaaus.org 또는 snucmaaus.com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Web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명실공히 우리 동창회가 관할하는 Web Site가 Launching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어디서나 snucmaaus.org 또는 snucmaaus.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우리와 연결되는 다른 모든 sites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올릴 기사나 작품, 이야기, 사진들이 있으신 동문들은 snucmaawe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리는 글들은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Web Committee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Chair/Vice Chair 주광국(68)/남명호(81), 현 회장, 현 시계탑편집장, 조의열(66) 사진 담당이 Web Site Committee 구성원입니다.

황열병(Yellow Fever)연구의 선구자 Dr. Carlos Finlay

이회백 (61, 시애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발견자 또는 선지자가 사실과 다른 수가 가끔 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Copernicus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Aristarchus of Samos다. 그는 이미 기원전 3세기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화론 하면 누구나 Charles Darwin

금년 4월 23일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미주 감리교 여성국에서 주최하는 아세아 전도부인 교육을 위한 선교경기에 참여하였다. 베다니 연합감리교회의 박대성 목사의 인도를 받아 Lorraine park cemetery로 갔다 그리고 한 오래된 조그마한 묘비 앞에 서게 되었다. 그 묘비에는 Yousan Chairu Pak 이라는 이름과 함께, 1868년 9월 21일 출생해서 1900년 4월 28일 볼티모어에서 사망했다고 새겨져 있었고, 영문으로 I was a stranger and ye took me in이라는 성경구절(마태복음 25:35)도 함께 쓰여 있었다. 그 묘비는 바로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1877-1910)의 남편, 박여선의 묘비였다. 박목사는 이번 주가 그의 기일이리면서



아주 작은 책자 한 권을 나에게 주며 자기가 자료를 수집하여 쓴 것이라고 했다. 34페이지 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소개 하고자 한다. 19세기말 미국교회에 불었던 선교적 부흥에 힘입었던 Rosetta Sherwood MD는 Mount Holyoke college의 Mary Lyon의 연설중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1890년 10월 의료선교사로서 조선에 왔다. 로제타는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여성들을 묘사했다.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그들은 '작은애' 혹은 '이쁜이'라고 불리는 데 결혼하고 아들을 나야만 '창식이 엄니'같이 아들의 이름을 따라 누구의 엄마라고 불린다." <이름 없음>은 곧 <존재 없음>의 의미이기도 했다.

로제타가 일하던 곳은 <보구여관>이었다.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의 집이라는 뜻으로 명성황후가 이름을 하사한 조선의 최초 여성병원(후에 이대 부속 병원으로 발전)의 2대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화학당에서는 몇명의 학생들을 보구여관에 보내서 로제타를 돕도록 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김점동(후에 김에스더, 박에스더)이었다. 영어를 제법 잘하여 통역을 맡기고 병원일도 돕게 했다. 김점동은 병원일이 재미 있었으나 피를 보는 수술같은 것은 싫어 했다. 그러나 로제타 선교사의 언청이 수술을 보조하고 난 후로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 했다. 그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언청이가 수술 후 새 삶을 살게되는 조선여성을 보면서 큰 꿈을 품기 시작 했다.

1892년 Rosetta Sherwood는 William James Hall과 결혼했고, 1893년에는 김에스더(김점동)도 박여선과 결혼 했다.

의 Origin of Species를 연상하게 마련이고 그가 진화론의 원조로 알고 있으나 진화론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Herbert Spencer다.

Darwin은 이 설이 맞음을 입증한 사람에게 지나지 않고 적자생존(Survival of Fittest)이란 용어도 그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Spencer가 지어낸 말이다.

마찬가지로 황열병(Yellow Fever)하면 누구나 Walter Reed가 처음으로 황열병이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는 것을 발견한 듯 알고 있으나 사실은 Carlos Finlay가 그보다 거의 20년 전에 이 설을 주장했다.

Dr. Carlos Finlay는 1833년에 Scotland 출신 안과 의사인 아버지와 불란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쿠바에서 태어났다. 그는 여러 번 유럽과 쿠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쿠바에서는 그의 학점을 인정해주지 않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Jefferson Medical College에 입학, 1855년에 졸업

박여선은 윌리엄 홀에 의하여 마부르고 고용되었던 기독교로 개종한 언젠가 정직하고 온화하며 겸손한 청년이었다. 조선의 전근대적인 여성관을 벗어나길 원했던 에스더와 조선시대 남성관을 깨고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박여

하고 의사가 되었다. 졸업 후 그는 Havana에 돌아와 안과개업을 하다가 1860, 1861년에 파리에 가서 연구생활을 했다. 1865년에 Trinidad 여자와 결혼해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다.

1881년에 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에서 황열병이 모기(Aedes Aegypti)에 의해 전염된다는 논문을 발표 하였는데 학계에서는 극히 회의적 이었다. 1898년 Spanish-American war 로 인해 미군이 하바나에 진주하고 황열병으로 많은 미군이 사망하게 되자 1900년 yellow Fever Commission 이 구성되고 Walter Reed가 책임자로 부임했다. 그는 처음에는 Dr. Carlos Finlay의 이론을 믿지 않았다.

그가 연구한 두 그룹 중 황열병 환자가 쓰든 옷, 침구 등을 쓴 그룹에서는 단 한명의 황열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모기에 물리는 실험에 지원한 그룹 중에서는 환자가 발생해 모기가 전염의 원인란 Dr. Carlos

그래서인지 미감리회 피츠버그 여성 해외 선교부에서는 박에스더의 의대 공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학창시절은 순롭지만은 않았다. 남편 박여선이 폐결핵에 걸려 심하게 투병하고 있었다. 의대교수 루이스 박사는 그 당시 에스더의 삶을 이

Finlay의 설이 인정받게 되었다. 더 확실한 실험을 하든 중 Commission 중의 한명(William Lazear)은 감염되어 불행히 죽기까지 했다.

Havana 지역에 있는 모기 생식처를 소탕하자 6개월 내에 황열병은 거의 사라졌다. Suez Canal에 성공한 불란서가 Panama Canal을 파기 시작했으나 포기하고 미국에 할값으로 판 이유의 하나가 황열병 때문 이었는데 미국이 성공한 이유에는 황열병 방지도 들어간다. 그러니 파나마 운하 건설 성공에 Dr. Carlos Finlay가 기여한 공도 무시할 수 없다.

Dr. Carlos Finlay는 종두를 만들어 Small Pox를 근절시킨 Edward Jenner에 버금가는 인류 질병퇴치 공로자이다. 일곱 번이나 노벨 의학 또는 생리학상 후보로 올랐지만 한 번도 받지 못한 그이지만 그는 쿠바인에게는 큰 영웅이며 쿠바는 박물관과 거대한 기념탑을 세워 그를 기념하고 있다.

지식으로 인해 병이 더 심해져서 오는 경우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몽시키는데 주력했다. 또 보구여관 내에 간호사 양성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로제타가 설립한 평양맹아학교의 운영과 교육에도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10년 4월 13일 그녀의 10년간의 봉사생활 끝에 폐결핵으로 고생하다가 짧았지만 빛나는 그녀의 삶을 마감한다. 그녀의 나이 34세였다. 로제타의 아들 Sherwood Hall은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에스더 이모의 죽음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창 귀하게 쓰임 받던 에스더 이모의 생명을 빼앗아 간 질병이며 수많은 조선백성들을 쇠약하게 만드는 결핵을 예방하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1928년 셔우드는 해주 구세 요양원을 설립하였고 결핵퇴치기금 모금을 위한 Christmas seal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박에스더와 박여선의 죽음이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불씨가 된 것이다.

이 작은 책자는 '나가는 말'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 어두움 속에 있었던 조선의 작은 소녀 김정동에게 로제타는 빛이 되었다. 그녀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주었고 그녀의 삶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게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점동이 결국 박에스더가 되어 조선의 여성들에게 또다시 빛이 되었다. '오늘날 이런 빛의 빛을 진 사람들은 이제 또 누구에게 빛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박에스더가 묻는 것이다.

박송수님은 2015년 묘지를 방문하고 그날의 회한을 시로 표현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한다. 로레인 파크의 파이란 하늘 아래 울지도 못하는 에스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제 조용히 잠든다 33년을 숨쉬게한 조선을 가슴에 품고 ...

모비여 너는 어찌 서지도 못하고 돌아 누웠느냐 너라도 일어나서 다시 돌아올 에스더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선이 이토록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그저 누워서 하늘만 바라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겠지 안녕히 가시게나...; 점동 그대는 절대로 울어서는 안되네

*묘지를 방문하거나, 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안세현 (302-463-7224)에게 연락 바람.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그녀의 남편 묘지를 방문하고서-

안 세 현 (68, 델라웨어)



선의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으리라.

1894년 박에스더는 남편 박여선과 함께 로제타 홀, 그녀의 남편 윌리엄 홀을 따라 그 당시 '조선의 소돔'이라고 불렸던 평양으로 갔으나 그곳에서의 선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한 달만에 중지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로제타는 아들 Sherwood Hall을 생산했으나 에스더는 미숙아를 생산하여 곧 아이가 사망했다. 신실한 사람 윌리엄 홀은 청일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894년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부상병들을 치료하다가 말라리아와 발진티푸스에 감염이 되어 순직한다. 그의 사역은 비록 짧았지만 평양선교의 개척자이자 고아와 어린이들의 진정한 친구였다. 그의 헌신은 후에 그의 아내 로제타 홀과 박에스더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로제타는 평양의 어머니라고 불리웠다). 남편의 순직으로 슬픔에 잠겼던 로제타는 잠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에스더는 자신의 오랜 꿈이던 미국에서의 의학공부를 위해 함께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다 1894년 12월 유복자를 임신한 로제타는 아들 셔우드와 에스더 부부와 더불어 미국으로 출발하게 된다. 1895년 1월 미국에 도착하여 로제타의 고향인 뉴욕주의 작은 도시 리버티에 정착하게 된다. 에스더는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라틴어, 수학, 물리학 등을 공부하면서 의대 입학준비를 하였다. 박여선은 농장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로제타의 모교이며 명문인 펜실바니아 여자의과대학 입학은 실패했고 결국 Women's medical college of Baltimore(1910년 폐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볼티모어에서의 의대생활 4년은 후견인 스티븐슨 부인에 의하면 "성적도 만족할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존경받는 학생이면서 점차 조선선교에 큰일을 감당할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평가했다. 에스더는 많은 곳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회를 했다. 신앙 간증을 하며 조선을 알리고 선교의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다.

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낮에는 수업 듣고 실험을 하는 힘든 학업을 해 내면서도 밤에는 남편을 지극히 간호하는 어려운 삶을 오랫동안 반복했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 졸업시험을 시작하려 할 때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훌륭히 의사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박에스더가 의사가 되는 것을 그 누구 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이가 바로 남편 박여선이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남편상을 깨고 에스더의 의대공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리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던 박여선 그는 끝내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가 의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의 나이 33세에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1900년 11월 서양의학을 공부한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는 미국감리회 여성해외선교부가 파송하는 의료선교사로 조선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에스더는 로제타 홀의 파트너로 한양의 보구여관과 평양의 광혜의원에서 수천명의 여성과 어린이 환자를 진료했다. 자신의 안위보다 환자들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기에 전염병이 유행할때에도 환자들을 집을 방문하고 약을 전하며 또 마음의 상처, 불안감, 두려움까지도 어루만져 주었다. 박에스더는 조선여성들의 의료교육에도 기여를했다. 미신적이고 잘못된 건강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이 사람의 향기
10문 10답



이번 호에서는 북미주동창회 총무로서의 임기를 시작하는 강민중(91) 동문과 대화를 나누어보았습니다. Dr. 강은 주로 COPD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예일대학교 호흡기내과 부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산부인과를 전공한 Dr. 권혜은(97)과는 부부 동문으로, 두 자녀와 함께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한 줄기 산바람이 주는 휴식같은 Dr. 강의 연구 이야기, 그리고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1991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연건동에서 내과 수련 및 호흡기 내과 전임의 과정까지 마쳤구요. 미국에는 2002년도에 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모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대 임상과에서도, “분자 세포 생물학(molecular & cellular biology)” 방법론을 이용하는 질병 발병 기전 연구를 해 보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의학 연구, 소위 “기초의학 연구 (basic medical research)”가 내과를 중심으로 임상의학과에서도 막 시도되는 시기에 내과 수련을 받으면서 저도 이런 연구에 접할 기회를 얻었던 거지요. 그런 경험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제대로 호흡기 관련 질병 발병 기전 연구를 해보고 싶다” 라는 열망이 커졌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예일 의대에 방문 연구자 과정으로 처음 왔는데... 이렇게 계속 이 일을 하게 되었네요.

2. 이 지구에 사는 약 70억명의 사람 중 인간 강민중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일에 진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솔직하게 자기 마음 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구요. 농담 같은 것을 잘 못 해서, 예전에 제 아내랑 데이트 할 때, “오빠, 재미있는 얘기 좀 해 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데이트 전에 신문이나 잡지의 “유머 코너”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3. 관심 연구분야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주된 연구 주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 기전 연구입니다. 최근에 “폐노화” 관련 연구로 관심 분야를 넓혔구요. 나이가 들면서, 비가역적으로 폐기능의 감소가 진행되는 점이 두 연구 주제의 공통점입니다. 이십대 초반에 최고점에 도달한 후, 세월이 흐르면서, 혹은 흡연이나 대기 오염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되면서 인간의 호흡 능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데, 이를 의미 있게 억제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은 관련 연구자들이 오랜 동안 꿈꿔온 주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매달리고 있지요. 하지만, 이런 현실적 응용만이 제 연구 관심사는 아닙니다. 저에게 생명과학 연구는 그 무엇보다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거리입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비를 끊임 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혹독한 현실이 존재하기에 후배들에게 강추하

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적성에 맞다면, 생명과학자, 혹은 의과학 연구자 만큼 세상에 좋은 직업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4. 의대 시절의 추억 중 기억에 남는 장소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요즘이 초여름이라, 야외에서 생맥주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때라서 그럴까요? 대학로 주변의 생맥주 집들이 떠오릅니다. 실습하면서 부대끼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실습조원들끼리 친해지잖습니까? 땀처럼 같은 거 끝나고 술 마시러 갈 때도 같이 어울려 나가고. 우리끼리는 술 마시고 싶을 때, 늘 “강씨 씨족회의” 하자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학번을 성씨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배열했고, 그것에 맞추어 열 명씩 실험 실습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실험 실습조는 언제나 일조였는데, 우리 동기생들 중 강씨가 열 명이었던 때문에 우리 실습조가 모이면, 저절로 우리 동기생들의 “씨족 회의”가 되었지요. 씨족 회의 한다면, 대학로 생맥주 집에서 밤 늦게까지 술 마시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대학로 근처 야외에서 부어라, 마셔라 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또 그 시절은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수상이 되어서,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가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런 이름을 딴 생맥주 집도 있었습니다. 이 맥주집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곳이 흑맥주라는 것을 처음 알게 해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랑 삼청동 공원에 가서 베드민턴 같이 했던 기억이랑, 창경궁부터 종묘를 통해 종로까지 같이 걸어 가면서 데이트 했던 기억도 납니다.

5. 'C C' (캠퍼스 컵)로서의 에피소드도 여쭙봐도 될까요?

음, 저는 그 때 내과 (호흡기 내과) 전공의였고, 제 아내는 본과 졸업 전이었습니다. 학년말 내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지, 의사 면허 시험을 앞두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쩌든 호흡기학은 잘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저에게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에 흩어져 있는 조그만 세미나실 중에 한 군데 비어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 둘이 달랑 같이 앉아서 열심히 기출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 학자적(?) 성향 때문이었는지, 이걸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호흡기 생리를 포함해서 원리랄까, 합당한 이유랄까, 뭐, 열심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언뜻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영,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왜 그러느냐구요. 그랬더니 속사포처럼 저한테 쏘아 대는 거예요. 내가 바보냐? 무슨 그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냐? 나는 시간을 아끼려고 오빠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이걸 뭐,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 그 때 느꼈던 당혹감이란... 아니, 그럼 초반에 분명하게 표현하지, 왜 한참 힘빼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도리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구요... 우리 컵플 또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말다툼을 수없이 이후로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때는 몰랐습니다. 하긴, 지금도 특하면 제 아내한테 듣는 말이,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긴 합니다.

6. 좋아하는, 잘 하는 음식, 자주 먹는 음식, 남들이 먹어보지 못했을 법한 음식을 한가지씩 소개해주세요.

제 아내 (이제 갓 개원한 산부인과 의사)가 저보다 더 바쁩니다 (이건 제 아내 버전)/ 바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제가 더 바쁩니다 (제 버전). 어쨌든, 저도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가 있는데, 남들이 먹어보지 못했을 법한

음식으로, “로메인하트 된장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음식이라야 진짜 생존을 위해 먹는 수준이어서 요리라는 고상한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제목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멸치 다시마 국물을 우린 다음에 된장을 풀고, 팔팔 끓을 때에 미국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로메인 하트를 배추 대신에 듬뿍 넣어서 살짝 끓이면 됩니다. 로메인 하트를 넣을 때에 마늘 다진 것 약간, 고춧가루 약간을 넣어 주면, 칼칼한 맛을 더할 수 있어서 좋구요. 또 아이들한테 쉽게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 저는 두부 한 모를 조그맣게 사각으로 썰어 넣어서 로메인 하트랑 같이 넣어 끓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원한 맛은 우리나라 고유의 “배추된장국”을 제법 흉내 낸다고 말할 수 있고, 로메인 하트가 만들어 내는 달큰한 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제법 어울린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전, 제 아내는 병원에서 당직서는 날인데, 저는 실험하느라고 허덕이던 시절 -그 때는 아이들도 어려서, 어른 둘 중 누군가는 꼭 아이들 저녁을 챙겨줘야 하던 시절- 예 밥이랑, 영양 만점 “로메인 하트 된장국”의 두 가지 만으로도 훌륭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7.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글귀, 관촬았던 영화 등이 있다면 시계탑 독자들에게도 귀해해주세요.

책 소개에 앞서서 먼저, 리디북스 (ridibooks)라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글 전자책 전문 인터넷 서점입니다. 다양한 책들이 전자책으로 준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신간 책뿐만 아니라 예전에 출판되었던 다양한 양서들도 많이 전자책으로도 전환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계열, 혹은 애플 운영체제 등에서 작동하는 앱도 무료로 제공해주고요. 이 앱을 태블릿에 깔고, 어디에서나 한글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지 않나요? 이 앱을 통해 작년에 “토지” 스무 권 전집을 전자책으로 구입한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머릿속에서 막연한 관념으로만 존재하던 구한말 및 일제 강점기의 지난한 역사가 다채로운 개성을 가진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엮여내는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책을 읽는 처음에는 어렸을 적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흰 수건을 두르고 부엌에서 뛰어 나오시면서, “아이고, 우리 장군님 왔구나...” 하시던 할머니, 한복 두루마리를 갖추고 제사 지내시던 근엄한 할아버지, 명절 때마다 모여서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누던 친척들... 뭐, 이런 한국 농촌 풍경이 흑백으로 머릿속에서 재생되다가, 토지가 빛어내는 이야기에 점점 몰입 되다 보면,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아픔, 한, 좌절, 그리고 개인이 넘어서 수 없는 시대적 모순... 이런 것들이 막 가슴을 파고 들면서 마음이 아리고 먹먹해져서 한 동안 멍하니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어린 시절의 추억들, 어머님, 아버님, 동무들과의 추억들, 그리고 그것들에 얽혀 있는 고향 풍경들,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떠오르고... 걸잡을 수 없는 핵분열처럼 머릿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연쇄적 회상 작용의 부작용은, 보통 살 때에는 전혀 “이역만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는 여기 미국 땅이 새삼, 내가 살아온 곳이 아니었구나 하는 낯선 곳이라는 자각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뼈속 솟아 오른다는 것입니다.

8. 한국에 있는 가족-친구들과는 어떻게 연락하며 지내시는지요?

부모님과는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우리 집

아해 김태형(63, 아틀란타)

앞뜰에는 꽃밭
 뒤뜰에는 텃밭
 꽃마당엔 엄마
 채소밭엔 아빠

앞뜰에는 꽃향기
 뒤뜰에는 퇴비냄음
 채소화엔 노랑나비
 장대골엔 고추잠자리



카톡으로 통화 하구요. 마포구청에서 개설한 무료강좌를 통해 아버님이 검도사가 되신 뒤로는, 특히 명절이나 연휴 때에 기회가 되면, 스카이프 화상통화를 합니다. 부모님이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하실 때에 스카이프 화상통화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과는 주로 이메일로 연락하구요.

미국 정착 초창기 때에는 수 년 동안 서울을 방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전보다 생활이 안정되어서 일 년에 한 번 씩은 꼭 부모님을 뵈러 서울에 갑니다. 가면 보름 정도 머무르구요. 그런데, 빙고 온지 두 세 달만 지나면 어머니가 또 물어 오시기 시작합니다. 또 언제 서울에 오느냐구요.

9. 바쁜 중에 체력 및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 아내가 약 이 년 전에 피트니스 센터 정기 회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원비는 한 달에 60달러 이구요. 거기에서 주로 달리기 합니다. 달리는 처음보다 약 이마일 정도, 근력 운동 기구도 처음보다 약 이십 파운드 정도 더 무게를 늘려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뛰는지, 어느 정도 무게를 들고 근력운동 하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창피하니까요... 주말에 제 아내랑 같이 가서 운동하는데 이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아내랑 같이 운동하니까 피로 파기가 어렵거든요. 남자 자존심에 적어도 아내보다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안간힘을 쓰고 무거운 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십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도 이런 것들에 아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ㅎㅎ.

10.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실 계획인가요?

뉴욕 주 북쪽에 위치한 애디론덱 공원(The Adirondack Park)에 갑니다. 서로 연결된 호수를 따라서 삼 일 동안 카약만 타는 코스도 개발되어 있을 정도로 큰 호수도 여러 개가 있는 공원입니다.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 이 공원 면적이 약 9,375 제곱 마일 이네요. 한반도 전체 면적은 약 85,270 제곱 마일 이라고 구글이 역시 알려 주고요. 그러니까,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크기의 약 11퍼센트 정도 되는 땅덩어리를 뉴욕 주 사람들은 약 백 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제한해 왔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카약만 탔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약 1500 미터 정도 되는 산봉우리에 올랐었구요. 참고로 이 공원 내에는 사천 피트(약 1219 미터)가 넘는 봉우리가 46개가 있어서, 이들 봉우리 모두에 올랐던 사람들을 “Adirondack 46ers(Adk46ers)” 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제 딸아이는 자기는 꼭 Adk46ers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가족들 모두 대만족이었고, 그래서 올해도 여름 휴가에 이 공원에 가려고 합니다.

2017년 “미주 병원 연수 참가 서울의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 보고서



2017년 7월 1일,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지역 병원 연수에 참가한 서울의대 4학년 학생들을 만나는 뜻깊은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젊은 후배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서인석 선배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되었던 이 행사는 벌써 수 년째 이어지면서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주요 여름 행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초창기, 뉴욕 지역에 연수나온 학생들 위주로 초청하였던 이 행사는, 지난해에는 오무연 동문의 노력에 힘입어 미주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초청함으로써 행사의 규모를 크게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동문회의 신입회장으로 선출되신 한승신 선배님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그 규모 뿐만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의미있는 발전을 이루었는데, “패널 토의” 형태의 새로운 논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패널 토의”는 지난 해의 성과 및 반성을 바탕으로 한승신 회장님, 이선희 동문, 오무연 동문 등이 논의하여 올해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은 이선희 선배님께서 한 달 가까이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큼니다. 이선희 선배님께서, 올해 미주 지역 여름 연수를 나오는 서울의대 본과 4학년 학생(약 30여 명)의 대표인 박제훈 학생과 한 달 가까이 지

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여름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주제들을 미리 선정하였는데,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SMLE는 언제 보면 좋을까요?
2. Non-citizen으로서 학교/전공 지원에서 제한받는게 있나요?
3. 한국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Fellowship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의사/전문의 자격증이 나오나요?
4.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 residency에 지원하는 데에 어떤 merit/강점이 있을까요? (정신과가 특히 궁금합니다!)
5. Faculty를 하지 않을 경우 주로 어떤 career option들이 있나요?
6. surgery 계열 residency에 매칭되는데 있어 non-US citizen/한국의대 졸업생으로서 보이지 않는 barrier가 있나요?
7. 미국환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한국과 달리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 있나요?
8. 한국에서 학교생활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Artificial Intelligence 등 future technology가 diagnostic part of medicine을 대체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을 듣게 되는데, 미국 의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9. 연구 지원 면에서 미국에서 faculty를 하는 것이 한국보다 뚜렷한

merit이 있나요?

10. 기초의학과 임상학의 연계가 한국에 비해 잘 된 편인가요?

11. 왜 미국에서의 의사 생활을 택하셨나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12.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께: 미국에 건너가서 생활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올해 연수 프로그램 참가 학생 대표인 박제훈 학생은, 참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행사 참여와 관련한 여러 실무적인 일들을 훌륭하게 마무리지어 주었습니다. 또한, 연수지가 미주 내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12명의 학생들이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은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과 좀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였고, 또 다양한 정보 및 조언을 선배님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오전 11시에 뉴저지의 레오니아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만나서 서로간에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리로 시작되었던 이번 행사는, 오후 5시 부터는 더블 트리 호텔의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패널토의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패널토의는 밤 9시가 넘도록 열띤 분위기 속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오고 갔으며, 참여했던 12명의 학생들도 오전에 처음 만났을 때의 어려워 하는 분위기를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또한 활기차게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패널토의에 참여했던 미주 동문들께서는 위에서 제시된 12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미주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온 몸으로 배운 자신의 경험 및 지혜의 이야기 보따리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들려 주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들 패널토의에 참여해 주신 미주 동문들은, 김용정 동문, 강민종 동문, 이태훈 동문, 조수정 동문 이셨습니다. 이들 패널리스트 4명, 한승신 회장님 및 김정아 동문, 이선희 동

문 등, 패널토의에 참여했던 이들 7명의 선배들은, 때로는 자신만의 개성 및 이력에서 우러나오는 독특한 색깔의 설명으로, 또 때로는, 미주 동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패널토의가 끝난 후에 호텔 라운지에서 가벼운 각테일과 함께 마무리 모임을 가질 때에는, 서윤석 대선배 동문께서도 참석하시어 이번 행사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크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후배들에게도 잘 전달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밤 9시 30분 경, 공식적인 패널토의가 끝났을 때, 오랜 토론으로 약간은 상기된 젊은 친구들이 눈동자를 반짝거리면서 표현하였던 이런 감사의 인사말, 그리고, 선배들과 좀 더 이야기하지 못해 아쉬워 하는 학생들과 함께,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도 호텔 라운지에서 행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계속 참여하여 끝없는 이야기꽃을 피웠던 늦은 밤의 분위기,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준, 마무리 모임 때의 화이트 와인 및 맥주... 하루 동안 진행되었던 후배들과의 만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강민종 (91, 커네티컷)

Feed and Weed

(비료와 제초제)

이원택 (71, 남가주)



대부분의 농사나 조경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잡초를 제거해 주는 일인데, 일일이 손으로 뽑아 주거나 제초제를 사용하나, 잔디나 어떤 종류의 작물에는 비료와 제초제가 혼합된 'Feed and Weed'란 복합화학제품을 쓰고 있다. 즉 비료는 알갱이가 작은 것으로 제초제는 알갱이가 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잎이 넓은 대부분의 잡초 위에는 제초제가 올라갔고 소립자의 비료 성분은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비료가 되는 것이다.

내 전공은 아니지만, 가끔 소아나 청소년 정신과 환자를 볼 때 부모들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바로 이 'feed and weed'의 법칙으로, 다른 말로는 '당근과 채찍'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사랑은 듬뿍 주되 돈은 조금만 주라는 등 "the best love is tough love. (엄한 사랑이 참사랑이다)" 라는 등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즉 부모는 'love(사랑)'라는 데 중점을 둔 줄 알았는데 자식들은 'tough(엄)'하게만 받아들인다든지, 어느 때 또 얼마만큼의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

야 하는가는 김정일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미 국방성이나 국무성의 엘리트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나도 잔디밭 관리를 이 일석이조의 'Feed and Weed(비료 겸 제초제)'로 해 보았는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잔디밭이 잔디와 비슷하게 생긴 잡초들로 꽉 차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에는 특정 잔디에 제일 맞는 비료를 열심히 뿌려서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잡초가 비좁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졌다는 생각으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고급 비료를 듬뿍 듬뿍 주어 왔다. 이것은 내가 환자들에게 즐겨 얘기하는, 즉 타이거 우즈나 매직 존슨같이 한 가지만 뛰어난게 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된다든지 다른 약점들은 상대적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 무언가 하나만 기뒵하게 잘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good money drives out bad money(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 라는 법칙인데, 결과는 잔디와 잡초가 둘 다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잔디밭이 보리밭이 돼 버렸다.

인간에게서도 재승박덕이란 말이 있듯이, 한 가지만 뛰어나고 다른 자질이 따라오지 못했을 때 O.J. 심슨이나 마이클 잭슨같이 불행하거나 기형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역시 거름을 줄 때는 거름만 주고 잡초를 제거할 때는 잡초만 제거해야지 얇은피를 써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신과 치료 방법 중에 'behavioral modification(행동 수정)'이란 것이 있는

데 이는 원래 동물심리학에서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을 본떠 고안한 방법이다. 지금도 간혹 그런 일이 있지만, 예전에는 동물을 길들이 때 채찍이나 전기충격을 줌으로써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게 하는 고문 요법을 썼다. 그랬더니 매에 못 이겨서 길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기회를 봐서 주인을 공격하는 사나운 동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한 방법이 우리가 서커스나 수족관 등에서 보듯이 동물들이 묘기를 부릴 때 쓰다듬어 주거나 먹이를 주는 '상여 요법'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호랑이는 호랑이답고 악어는 악어다워야지 호랑이가 고양이같이 되고 악어가 도마뱀같이 되면 그 본래의 의미나 맛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2차대전 후에 미국 아동심리학의 주종을 이루면서 학교에서도 채찍은 다 부러뜨려 버리고 오직 당근으로만 학생들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형편없이 물러 터지고 이기적일뿐더러 버르장머리도 없는 것이다. 애들은 무조건 칭찬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엄한 부모들을 야만인이나 범죄자로 몰아왔던 소아과의 거장 Dr. Spoke는 얼마 전 돌아가기 전에 자기 학설에 모순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좀 더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고 유언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또한 'reciprocal inhibition(상호 억제)'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두 가지 정반대되는 자극이 동시에

The Inflammation of Love

Young C. Shin ('59, Maryland)

With him a few dates, and now she is in the heat of love
- calor

Whenever he looks at her her face turns red
- rubor

When he holds her hand her hope sells up
- tumor

When he eyes another woman her heart aches
- dolor

들어왔을 때 큰 자극만 인지하고 작은 자극은 큰 자극에 파묻혀서 소멸된다는 것이다. 즉 섹스의 클라이맥스에서는 모기한테 한방 쏘여 보아야 별로 아픈 줄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처럼 안정과 불안, 환희와 고통, 양과 음이 대치될 때 한쪽을 아주 강력하게 키워주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feed and weed(강식약육)'의 모체가 되는 이론이다. 그러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아무런 자질이 없거나 움치고 뿔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근사하지만 섹스를 할 수 없거나 파트너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 방법은 잔디에 잡초가 나면 일일이 손으로 뽑아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비료를 주어야 제대로 잔디가 자랄 것이다 (암이나 종기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임). 'feed and weed(북돋고 김매기)'는 'weed and feed(김매고 북돋기)'가 바른 말이다. 혹시 말쑥꾸러기 자식들 둔 사람들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마디 썼다.



페루(Peru) 여행

김진홍(68, 버지니아)

콜럼버스(Columbus)는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우연하게도 신대륙을 발견한다. 사실 인도로 가는 길은 옛부터 잘 알려진 비단길이었으나 돌궐족이 아시아쪽 터키 즉 아나톨리아 평원에 자리 잡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버티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바닷길을 새로 찾아 나갈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유럽인들은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먹었는데 미각적 욕구 때문에 향신료인 후추를 원했고 그것을 인도에서 가져다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가기를 원하였다.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인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에 정착하여 귀부인과 결혼 하였다. 그는 서쪽으로 가면 인도로 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포르투갈 당국에 향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스페인에 다시 지원 요청을 하였다. 당시 스페인은 남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정복하고 그 여력으로 콜럼버스에게 산타마리아 등 배 세 척을 지원해 주었다.

그는 향해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신대륙을 발견하였고 그 섬을 산 살바돌(san Salvador, 구원의 섬)이라 명명하였다. 하지만 그는 1506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의 부하들은 파나마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큐바 도미니카에 원주민 찾기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탄 배는 유카탄 반도에서 좌초하게 되고 그곳에서 콜테즈는 아즈텍 문화를 멸망시키고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남쪽으로 향해 잉카제국을 멸망시켰다. 잉카제국(Inca Empire)은 1521년에 멸망하여서 스페인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여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후 유럽에서 일어난 변화 즉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에 반기를 들었던 스페인이 그에게 정복 당하게 되고 쇠약해지니 이때를 틈타서 페루(Peru)는 1800년 산 마틴(san Martin)의 독립운동에 힘입어 1521년 잉카제국 멸망 이후 약 3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된다.



페루의 수도 리마(Lima)는 태평양 연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비가 오지 않아서 급수차가 나무에 일일이 물을 쥐야 한다.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흐르는 훔볼트 한류의 영향으로 바다 수온이 내려가 비는 안 오고 가끔 잉카의 눈물 이라는 안개만 낀다고 한다. 엘니뇨(작은 남자 아이)는 적도지방 태평양에서 해류가 더워지는 현상이고, 그래서 미국의 서북부가 겨울에 더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라니냐(작은 여자 아이)는 해수가 차가와

지는 현상을 말한다. 처음 리마에서의 방문지는 라마스 광장인데 대통령궁 가톨릭 교회와 산 마틴 동상이 있으며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된 이른바 거리 (명동 거리와 비슷)를 돌아보았다. 점심식사는 태평양 해변에 있는 식당에서 <세비체>라는 낱생선 요리를 시식 하였는데 일본 요리에 영향을 받은 퓨전 요리로 생선에 라임즙을 치고 양파를 썰어 넣은 것인데 현지인에게는 인기가 높을지 모르나 우리 일행들은 초고추장 생각이 간절했다. 오후에는 잉카시대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을 갔는데 특이한 점은 그들에게는 문자가 없어서 생활상을 도자기에 그림으로 남겨 놓았다.

다음날 우리가 향한 꾸스꼬는 리마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반 걸리는 해발 3400미터에 위치한 백두산 보다 높은 고원지대 이다. 잉카시대 수도였는데 방문할 곳도 많아 거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고산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루 전에 다이아마스를 복용 하였다. (그 약의 고산증 작용 기전은 확실치는 않지만 카로티드 바디, carotid body에 자극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짐). 하루에도 사계절이 변한다고 하는 꾸스꼬 날씨에 맞추어 아침에 리마에서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으니 리마에서는 더웠다. 페루 공항관리는 독일 회사에 맡기고 있어서 물건을 분실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산지대에서 개인적으로 주의할 점은 화장품이나 치약 뚜껑을 꼭 닫아야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 몸 안에 있는 깨소도 쉽게 방출 된다. 사람들이 꾸스꼬에 오면, 고지 적응이 안 되어 있음으로 숨이 가빠지고 현기증이 나며 많이 걷거나 오르막 길을 걸으면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한다. 잉카 왕궁 꼬리칸차 의무실에서 혈중 헤모글로빈 산소 포화 상태(Pulse Oxymeter)를 재어 보니까 정상에 훨씬 미달 이었다. 그러나 나는 견딜만 했다.

꾸스꼬 관광은 라마스 광장과, 가톨릭 성당 그리고 꼬리칸차 왕궁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꼬리칸차는 잉카의 황금기를 이룬 황제의 이름이며 원래 황금으로 치장 되었던 왕궁은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약탈 당하였다고 한다. 잉카인들의 건축 기술은 뛰어나서 지진에도 견디어 내는 석조건물을 지었고 돌과 돌 사이의 맞물림을 안정하고 고정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였다. 점심식사는 꾸스꼬 현지식인데 일행 한 분이 보라빛 옥수수 음료를 마시고 알려지 반응을 일으켜 긴장 했으나 베나드릴을 먹고 천천히 회복 하였다. 우리 여행 가이드가 꾸이(cuy) 라하는 기니아 피크(guinea pig)을 구운 음식을 준비 했으나 아무도 먹지는 않았다.

이날 오후에는 잉카시대 요새로써 스페인 정복자에게 마지막으로 저항하다 무너진 삭사이 라망을 돌아보았는데 비구름과 번개가 몰려와 우리는 포기하고 버스에 남아 있었다.

꾸스꼬에서 오늘 숙소인 신비의 계곡에 있는 우루밤바는 우루밤바 강 옆에 있는 평원인데 이곳으로 내려가는 길은 대관령 산길을 내려 가는 것 같은 험한 길이고 내장을 뒤집어 놓는다. 이곳은 민가도 드물게 있는 산골인데 좋은 호텔은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마침내 도착한 곳은 미국에서도 4성급으로 평가될 호텔인데 우리 일행 모두가 놀랐다. 이 호텔 이름은 아란와 호텔이고 이곳은 규정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어 2층으로 짓고 조

경이 특히 잘된 아름다운 숙소이다. 마추피추(Machu Picchu)로 가는 날에는 고산지대 대비한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 여정이 이번 여행의 크라이막스! 바쁜 일정을 위하여 일찍 일어나 버스로 기차역 오란와이팜보 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잉카 기차를 타고 마추피추 역에 내려 짐을 맡겼다. 그리고 가파른 산을 지그재그로 오르는 버스를 타고 마추피추 입구에 도착 한다. 여기에서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여권도 검사 했다. 일단 입장하면 돌로 만들어진 산비탈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서 산 정상에 오르는데 정상에서 마추피추는 내려가야 한다. 아직도 누구에 의하여 지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나 아마도 1400년경 그때 유명했던 꼬리칸차 황제에 의하여 세워 졌을 것으로 추측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이 1911년 예일대 고고학 교수 하이람 빙햄(Hiram Bingham)에 의하여 발견 되었다는 사실은 잉카인들에게 문자가 없어 기록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 스페인 정복자들도 몰랐던 것이다. 정말 마추피추로 가는 잉카 트레일은 험한 길이라 보통 사람은 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설을 믿었던 하이람 빙햄은 당나귀에 등짐을 지우고 탐험에 나섰던 것이고 결국 1911년 드디어 수백 년 숲속에 숨겨진 도시를 발견한다.



여기서 잠깐 페루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까 한다. 페루 사람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옥수수는 막걸리를 만들거나 음료수를 만든다고 함. 막대기 끝에 빨간색 천으로 짠 둥근 봉을 매달은 집은 막걸리 파는 집을 의미하고 파란색 봉은 접대부가 있는 집을 의미한다. 오로데사 라는 마을은 빵굽는 마을인데 일반 집에는 높은 온도 까지 올라가는 화덕이 없어서 여기서 빵을 구워 가정에 공급한다고 한다. 집은 황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을 쌓아 만드는데 황토에 석회가 섞여서 시멘트 역할을 해서 튼튼하게 집을 지탱하나 침수되면 허물어져 홍수에 취약 하다. 퀴노아는 조와 비슷한 곡물인데 페루가 주 생산지 이다. 고산지대에는 나무가 안자라는데 호수에서 유칼투스 나무를 들여와 식목해서 2500미터 고지에서 잘 자라고 있다.

우루밤바에서 뿌노로 가는 길은 450킬로인데 안데스 산맥의 계곡 사이에 평야지대가 있고 강이 흐르며 밀 보리 옥수수 등 농사를 짓고 양 소와 알파카를 방목하고 있다. 감자는 페루가 원산지이고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처음에는 관상수로 유럽에 수입하였고 스페인을 통하여 프랑스로 가고 마리 안토아는 감자꽃으로 머리를 장식할 정도로 유행하고 푸르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감자 독소를 제거해 식량화해서 강력한 국가건설에 원동력이 되었고 영국 아일랜드를 통하여 미국으로 들여 왔다. 4000미터가 넘는 고지에는 큰 나무도 자라지 않아 떨감이 없어 야마폰을 떨감으로 쓰고 있다.

티티카카 호수 주변에 있는 뿌노는 해발 3800미터에 위치한 도시로 서둘러 몸을 움직이면 숨이 가빠오고 약간 두통도 느낀다. 뿌노는 인구 20만 명이 사는 도시 이다. 티티카카 호수에는 갈대를 엮어서 물위에 띄우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원주민이 옛날 관습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현대

화의 물결은 어쩔수 없어 갈대로 만든 그들의 움집에도 텔레비전은 있다. 한국 사람들이 준 동요 테이프를 들고 아이들이 한국 동요를 부른다. 티티카카 호수는 베라쿠차 라는 페루인의 조상이 시작한 전설이 있는 신성한 곳이고 스페인 점령하에도 변함없이 전통을 이어온 우로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금은 초등학교와 우체국이 있고 중학교부터는 배를 타고 뿌노로 통학을 한다. 뿌노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의 후리아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고산 증세는 열려 안해도 된다. 그동안 약도 복용하고 조심도 해서 아무 탈 없이 지냈다. 리마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범 아메리카 고속도로는 알라스카에서 칠레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이고 왼쪽은 사막 오른쪽은 태평양이다. 포스코(Posco)에서 캐스터빈 발전소를 세웠는데 공업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물이 귀한 사막이므로 주민의 반대로 지금은 바닷물을 처리해서 사용하고 한다.

빠라까(paraca)는 리마에서 남쪽으로 100여 킬로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서 발레스타스(balestas) 섬은 배로 약 30분 걸리는 물새 천국 이다. 약 180여 종의 새와 수백만 마리의 물새가 새개의 섬에 서식하고 있고 페리칸 그리고 남극 한류의 영향으로 펭귄도 있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의 갈라파고스(Galapagos)라 하는 섬이다. 이곳에서 새똥을 정기적으로 채집해서 비료로 쓴다고 한다.

이 태평양 연안은 사막인데 곳곳에 안데스로 부터 내려오는 물줄기 따라 녹지대가 형성되고 농사를 지으며 때로는 대기업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프리카 땅콩 아스파라가스 양파와 오렌지를 생산하고 특히 아스파라가스는 미국에 수출 한다.



나스카 라인은 사막에 동물 형태를 그려 놓은 것이며 어떤 그림은 크기가 사방 50미터 이고 어떤 그림은 길이가 200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지상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비행기에서 봐야 알 수 있다. 이 곳의 돌은 철분을 함유해 검은색을 띄우고 있는데 파내면 흰 모래가 나오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림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한다. 이것은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믿고 누가 무엇때문에 그렸는지 확실한 정설이 없다. 미국인 폴 코삭(paul kosok)이 1954년 수로를 측량하다 우연히 발견하고 그림이 범상치 않아 보고하고 마리아 와이히(Maria Reich)는 이 그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존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1994년에 했다. 지금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마추피추와 걸려서(every other year) 등재 된다고 한다.

태평양 연안에 사는 페루인들은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얼굴색이나 체격이 서구인을 닮은 사람이 많다. 페루인의 45%가 인디오이고 35%는 혼혈이고 15%는 백인이고 나머지는 흑인과 동양인 이다. 동양인은 중국사람이 제일 많다. 한국 교민은 극소수이고 우리의 여행 안내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페루 방문 당시 수행원이었다. 그리고 용의주도한 준비로 좋은 호텔 좋은 음식과 박식한 페루 설명으로 여행을 한층 즐기고 일행 전원 건강하게 여행을 끝마쳤다.

지팡이 선물

서윤석 (68, 버지니아)

“이 지팡이는 내 인생의 일부예요. 이것을 보면 한국에서 전쟁 때 보내던 세월과 친절했던 한인들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면서 얼마 전 한국전쟁



에 참전했던 75세 된 왕년의 미군 한 병사가 지팡이를 들고 내 클리닉을 찾아 왔다. 그의 손에 지난 50여년을 간직했던 지팡이 하나를 꼭 나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들고 온 것이다. 한국 의사인 나에게 지난번 진료차 방문했을 때 그 전쟁당시에 있었던 이런 저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발걸음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그가 내게 보여준 지팡이는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혀있던 북한 포로 한 사람이 그에게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195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에 참가했던 그는 헌병으로서 근무하였다. 4-5만 명으로 기억하는 북측포로가 수용된 거제도에서 근무하였을 때 이야기로 시작 한다. 처음 6개월간은 반공포로와 공산포로가 뒤섞여 있어서 폭력, 구타, 살인 등의 삼엄한 분위기였는데 나중엔 공산포로들은 따로 분류하고 그들에게 복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말한다. 물론 자유를 찾는 반공포로들은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결단으로 석방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스트랜저씨가 근무 중이던 이 수용소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노병으로 기억하는 포로가 있었다고 한다. 성은 ‘정’ 씨였다. 그는 비교적 감시가 느슨한 자재창고에서 일했기 때문에 스트랜저씨는 그와 가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는데 영어를 조금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 의사소통도 가능했다. 1953년 7월 정전이 된 후 포로 교환시에 복송여부를 최종 판가를 하는 전 날이었다. 강요에 의한 결정은 아닌가 다시 복송여부를 묻는 일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북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

하면서 가기 전에 꼭 주고 싶어서 그동안 만든 선물이라면서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고 작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가 들고 온 지팡이를 자세히 보니 아주 잘 만들어진 예술품이다. 수용소에는 이렇다 할 공구도 없었는데 너무나 믿기지 않게 잘 만들었다. 조각한 무늬하며, 불에 살짝 거슬러 나타낸 자연적 채색, 용의 머리로 된 손잡이를 따라 그 몸체를 둥글게 감고 올라가는 구멍이형의 형상이 기가 막힌 걸작품이다. 빙빙 돌면서 허리를 감는 끈을 풀어 새겨 놓았다. 이렇게 이 지팡이를 만들면서 정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물론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사상을 떠나 당연히 택해야했을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영어를 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 한다면 그는 고등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일 것이 분명하다. 적국의 병사이지만 이별을 아쉬워하고 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이별을 준비하여 이렇게 훌륭한 예술품을 만들어 이 미군 병사에게 주고 간 것이다.



아마도 그는 훌륭한 불교신자였거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나 아니면 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아주 훌륭한 조각가였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반세기도 더 지났으니 아마 그도 이 세상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훌륭한 한국민족의 한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정을 나누는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며 마지막 작별을 할 때 아버지 같은 머리가 벗겨진 주름이 접힌 그의 얼굴, 그가 흘리던 눈물을 저는 아직도 기억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미국에 가지고 와서 지난 50여년간 현관에 간직하면서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져 본 셈입니다. 적국의 공산군 포로가 준 이 선물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젠 저도 몸에 여러가지 병이 많고 살날이 많이 남

비눗방울

김병오(69, 버지니아)

갓 네살박이 손녀딸이 노란 입으로 만든 비눗방울을 따라 한 바퀴 세상을 돌고 왔다
덧없음이 오늘 뿐이라
크고 작은 비눗방울이 한 마리 솔개처럼 또는 쫓기는 새들처럼 푸른 하늘로 날아간다
나는 꿈이라고 보았다 노린 입은 레이싱 카 같다고 보라고 보라고 한다
꿈을 쫓아 달려가는 레이싱 카 레이싱 카를 쫓아 달려가는 꿈
둘의 눈빛이 마주 친 이 瞬間 구름이 반짝 사진을 찍었다
바람을 타고 가는 영롱한 질주를 바라보다가 손을 꼬옥 잡았다
나와 다른 세상에 살기를 바랬다

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팡이를 곧 한국전쟁 전기기념박물관에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쟁을 통해 인연이되어 만난 적국 병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한다. 스트랜저씨는 중군 후 제대하여 건축사업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 신장병 등등 오래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은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자기를 친절히 대해준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4만명 가까운 미군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병들을 기록하는 한국전에서 살아 돌아온 한 미군병사의 이야기다. 수십만의 중공군의 사망자와 수백만의 남북 병사들, 백만명의 선량한 민간인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전쟁이었다. 이 같은 정치가의 오판에 의하여 기습으로 시작된 이 6·25전쟁을 요즈음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는 이 두 눈으로 보았다. 피난 중에 나는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신발이 없이 학교에 맨발로 걸어가지도 했다. 전쟁 중에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도 정치적 인 사상이 다르면 피비린내를 내며 서로 싸웠다. 이런 비극을 우리는 이상 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전쟁 통에 생겨난 고아, 굶주림, 질병, 질투, 살생, 이별, 길가에 쓸어져있었던 시체들, 그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이런 비극들을 젊은 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욱이 핵무기같은 무서운 살생무기가 등장해서 더욱 그렇다.

과학자 스티븐 허킹스가 얼마전 말한 것은 인류가 싸우다가 멸망하지만 않으면 30년 후에는 달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100년 후엔 화성에 인류가 정주할 수도 있게 되리라고 내다보았다. 이 가설은 우리가 스스로 파멸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는 이야기다. 평화와 공존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지나친 종교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인종차별주의, 지나친 정치사상주의를 주장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은 모든 인류를 자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여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하다. 특히 인간들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요즈음 상황에서 더 걱정이 되는 일이다. 다소 비약하는 비관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한창 불타고 있는 하늘의 태양도 123억년의 그 수명 (태어난지 45억년)이 결국 끝나게 되는데 다 타버리기 10억년 전쯤에는 그 반경이 커져서 지구도 뜨거워 그 반경 속으로 들어가서 타버린다는 것이 우주과학자들의 예측이다. 비록 우리의 살아생전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결국 아웅다웅하는 모든 인간지사가 그리 복잡한 일도 아닐 것이다. 어차피 모든 지구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그 흔적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 ‘모두가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며 살다가간 성현들의 말씀들이 새삼스럽게 생각나게 한다.

이원택 박사의 '신비경'을 읽고

고예자(Mrs. 이운순 58, 대뉴욕)

얼마 전에 동창회에서 저자의 싸인을 받아 힘들게 얻어서 읽은 책이다. 처음 얼마쯤을 읽어보니 책이 의대졸업생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 내 수준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덮어둔지 몇 년... 그러다가 지난 2016년 워싱턴 버지니아의 33회 학술대회에서 이박사를 만나 시계탑에 쓰신 글 ‘정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LA에서 34회 학술대회에서 다시 저자를 만나게 되어 그 책을 다시 읽어보아 되겠다고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다시 읽으니 글이 점점 이해하기가 쉬워졌다. 그리고 점점 재미가 있게 되어 이틀에 걸쳐서 다 읽게 되었다. 많은 제목 중에 ‘동반시대’라는 책 내용에서는 Darwin의 Theory에 의하

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생물이 아니라 가장 적응을 잘 하는 동물이 살아남는다’ 라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이런 사실을 자연도태 또는 자연 선택이라고 말한다. Cancer Survivor인 남편과 사는 나는 그 힘든 질병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쉽고 평안해진다.

10년 전쯤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in New York’에 갔을 때 다윈이 런던을 떠나 남아메리카로 가던 중 지금의 Ecuador, Galapagos 섬까지 가는 것을 지도에서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그가 연구하기에 도움이 되는 신기한 동식물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 박사의 책 중에 ‘개똥썩’이 있는데 이것은 이박사의 친구 중에 강원도 흥천 산속을 이틀이나 헤매다가 뜬 것으로 이리나 노루 등 산짐승이 배설한 곳에서 자란 썩으로 아주 귀하게 쳐준다고 했다. 이 썩은 이질에 특효약이고 각종 암에도 항암효과가 있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는 설사의 고질병도 고친다고 한다. 저의 남편이 항암치료로 Memory Cell을 많이 잃었을 때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슷한 경우의

동기부인이 개똥썩을 추천해서 우리도 힘들게 제주도 원산지에서 구해다가 차를 만들어 복용하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더 부탁했으나 이번에는 잎사귀를 말린 것이 아니고 가지만 토막을 내서 말린 것을 우편으로 받았다. 좋다고 소문이 나서 혹시 속이는 것이 아닐까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맹물이라도 아직도 복용하고 있다. 이곳 미국 대형마켓에서는 개똥썩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고 물어보니 마냥 웃기만 한다.

이 책에는 많은 시들이 수록돼 있고 이박사가 금년부터 재미시인협회 이사를 맡았다. 역시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여러 방면에 인재들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또 ‘김치찌개 부대찌개’ 김치찌개에 대해서는 알지만 부대찌개는 처음 듣는 신기한 메뉴라 한번 시험해 볼만한 것 같고 다음에는 요리책도 써보시기를 부탁하고 싶다. ‘대만 풍물지’를 읽어보니 더 늙기 전에 한번 대만에 가 보고 싶지만 내 나이 80이요 남편이 84이니 가능할까? 대만 영화감독 Edward Yang의 ‘Yi Yi’ ‘Taipay Story’ ‘a Bright Summer day’ 등으로 만족할 수밖에

에 없을 것 같다.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한 40년 전 곰창전골이라는 음식이 맨하탄의 강서회관이란 식당에서 새 메뉴로 등장했을 때 우리부부는 오페라가 끝나면 밤 11시 경에 가서 즐겨 먹기도 했다. 그런데 책에 곰창전골에 고춧가루를 저지는 더 뿌린다고 하였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그 부인이 된 분은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춧가루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는 남편과 같이 사는 나같은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은 아닐까하며 생각해 본다. 이박사의 매콤 상큼 입맛을 돌아주는 얼큰하고 씹씹한 고추장은 얼얼하고 고춧가루는 알알하다는 표현은 우리들에게는 Galapagos 말 같이 틀렸다. 신비경은 그 제목처럼 나를 몹시 놀라게한 책이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오신 지성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인 이번 LA에서 열린 34회 미주서울 의대동창회 학술대회에 다녀오고나서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다. 그분들을 만나 보려고 왕복 6천마일을 다녀온 것을 한없이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 특히 훌륭한 책을 주신 이원택 박사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NORWAY

피오르와 빙하의 청정지역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마실 물을 찾았더니 화장실에 가서 마시란다.

농담이 너무 심하구나 하며 어처구니가 없어 쳐다보고 있는데 금발의 여직원이 데스크를 돌아 나와 화장실로 가더니 수도꼭지에서 물 한 컵을 받아서 친절히 가져다준다. 그제야 어제 호텔로 오는 도중 가이드가 한 말이 생각났다. 여기서는 병 물을 마실 필요가 없이 수도물을 그냥 마신다고 했었다. 개울물을 손으로 떠서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어느 친지가 미국에서 산골 개울물이 하도 맑아서 손으로 떠서 마셨다가 Giardiasis라는 기생충 병에 걸려 한 동안 고생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미국에선 아무리 맑아 보이는 냇물도 떠 마실 엄두를 못 냈었다.

이곳은 정말로 지구의 청정지역이다. 물맛도 좋고 샤워를 하면 살갓이 매끈매끈하다.

깎아지른 듯한 피오르에서는 여기저기에서 폭포가 쏟아져 내렸다.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폭포들은 운무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어디론가 땅속으로 사라졌다가 큰 시냇물이 되어 바닷물로 흘러 들어갔다.

피오르의 허리까지 차 오른 깊은 물은 잔물결도 없이 도도히 흘렀다. 거울 같은 물에 비친 포구의 마을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Balestrand 호텔의 식당에서 4 Course Dinner를 먹었다. 두 층으로 된 투명한 유리그릇에 담아 내어온 전채는 아마도 Chef의 최신작인 듯 했다.

아이스크림 컵 같은 바침 그릇에는 미역이 깔린 묽은 죽이 있었고 그 위의 볼에는 푸딩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미역을 쓰는 법은 셰프가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볼에 담긴 푸딩은 부드럽게 혀에 감기는 맛이 그야말로 "마, 짝이준다." 였다.

백포도주 Gruner Vetliner는 첫 모금 맛이 아주 깊으면서도 뒤 맛이 비단결처럼 섬세한 오스트리아 산 이었다.

호텔은 꽤 오래된 목조 건물인데 넓은 갤러리에는 아마도 20세기 초의 이 고장 화가들의 작품인 듯한 꽤 많은 원화들과 빛바랜 흑백 가족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호텔을 한 바퀴 둘러 보고 있자니 어디선지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 피아니스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근래에 이곳 고향으로 돌아 왔다는 초로(初老)의 남자였다.

"If you go away", "Times go by",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

허술한 옷차림에 낡은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Oldies but Goodies...

뽕 간 분위기에 주는 대로 받아 마신 술로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 기분이 풀릴 대로 풀렸다.

달콤한 우수에 젖어들게 하는 지난날의 명곡들... 젊은 날들의 환영이 어렵듯 손에 잡힐 듯...

밤이 늦어 일행들은 다 방으로 올라갔는데 나 혼자만 피아노 앞을 떠나지 못 하고 한참을 더 있었다.

밖을 내다 보니 아직도 대낮처럼 환하다. 백야(白夜)! 여기가 바로 The Land of Midnight Sun이다.

"SORRY ! IT'S IN MY BLOOD..."

기차 타고 이동하는 날. 기차를 한번 갈아타게 되어 있는데 갈아 탈 기차에는 좌석 배정이 없었다. 시골 역의 대합실은 비를 피하려는 각종 인종들로 북적거렸다.

우리는 밖에서 비 피할 곳을 찾았다. 여차피 짹짹 올라타야 앉을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면 밖에서 기다리는 게 낫다.

도착한 기차는 만원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릴지는 모르나 어물거리다가는 서서 가게 생겼다. 기차가 서자 웬일인지 옆의 승강구로만 사람들이 내리고 내 앞에 와 정지한 승강구로는 문도 열리지 않은 채 내리는 사람이 없다.

문을 억지로 밀어 제치고 앉장서서 돌격대원 처럼 뛰어들어 사람들을 비



김 명 원(68, 남가주)

집고 들어가려는데 웬 백인 남자가 막아서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무어라고 떠든다. 가만히 들어 보니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다.

액센트가 심했지만 분명히 영어였다. "내릴 사람들부터 내리고 타야지 이렇게 올라와서 출구를 막으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느냐" 며 우리를 질타하는 소리였다.

"앗뽀사" 마빡을 뒤통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어디서나 "빨리 빨리"를 외치며 설쳐대는 동포들을 볼 때마다 낮 뜨거워 하던 행동을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어제만 해도 조각 공원에서 저 먼저 사진 찍자고 빨리 쳐다보며 밀치고 들어오는 우리 동포들을 보며 한국인으로 태어난 나 자신을 저주 했었다. 그러던 내가 무슨 망령이 들어서 지금 이런 황당한 짓을 저지르고 있던 말인가. 미쳤다.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했던 6.25 피란 통의 기차간 경험이 나의 무의식 속에 각인 되어 있었던 것일까.

아무리 아닌 척 해도 그 "빨리, 빨리"의 DNA는 나의 핏 속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강을 건너 준 개구리의 목에 독침을 꽂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It's in my blood." 했다면 이습우화의 전갈처럼.

선진국에서 모진 일 한번 당하지 않고 살아 온 지도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마당에 느닷없이 돌출된 나의 망발이라니.

"Oops! You're right. I'm sorry, You're right..."

걸리적이거리는 짐 보따리를 끌고 황급히 돌아 내렸다. 사람들이 그제야 띄워 준 통로로 줄줄이 내리기 시작했다. 내려오는 사람들을 멍하니 올려다보고만 있다가 그들의 짐을 거들어 주기 시작 했다. 어디서 기운이 났는지 내 짐보다도 더 큰 짐 보따리들을 번쩍 번쩍 들어서 받아 내려 주었다.

"Thank you, young man!" 지팡이를 짚고 내리는 노인사.

"Young man" 이라니.

비 때문에 뒤집어 쓴 모자에 가려 내 학발(鶴髮)이 안 보였던 모양이다. 수치심에 모자를 너무 폭 눌러 썼나? 끌려 나온 연쇄 살인범처럼?

그 뒤로 내리는 노부인의 집도, 중국인 같아 보이는 젊은 여인의 집도 덩석덩석 받아 내려 주었다. 신들린 듯이, 연방, 속죄의 눈물을 삼키며,

FISH SOUP

Alesund는 11개의 섬으로 구성된 노르웨이의 항구도시.

디너 예약이 되어있는 식당은 5 Star 라기에 넥타이까지 매고 갔다.

주인 여자가 손님들을 다루는 솜씨도 5 Star 급이어서 그녀의 감독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Server들이 우리 일행 열두 명을 기분 좋게 모셨다.

포도주는 Les Gres라고 하는 Viognier와 Chardonnay의 혼합주였다. 어제 마신 것 보다 심플하면서 산뜻했다. 대가리를 그대로 둔 채 몸통과 꼬

리의 껍질만 벗겨낸 새우와 조개류, 대구 등이 든 Creamy Fish Soup이 일품이었다.

"The best fish soup in Norway"라고 칭찬 해 주었더니 주인 여자가 "In the whole world!" 라고 고쳐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No, the best fish soup in the whole world is the



Korean fish soup!" 이견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넘겼다. 하기가 Fish Soup으로 말할라치면 우리의 동태찌개, 대구 매운탕, 해물탕 등을 당할 자가 또 있을까.

전에 살던 버팔로에 "Il Fiorentino"라는 아담한 이태리 레스토랑이 있었다. 밀란에서도 이름을 날리던 남편이 Chef 였고 그의 부인이 웨이트레스로 일했다. 예약한 시간에 가면 반듯하게 쪽진 머리를 한 젊은 부인이 정문에서서 두 손을 단정하게 앞으로 모으고 각듯이 인사를 하며 우리를 맞이하곤 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 중간쯤에는 반드시 남편이 주방에서 나와 서투른 영어로 음식 맛이 어떻냐고 물었다.

바벨 텐데 얼른 들어가 보라고 하면 "Oh, yes. Busy, busy. Confusione!" 하며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에 하나 밖에 없는 한국 식당에서 그를 만났다. 무얼 먹나 보았더니 시벨건 도미 매운탕이었다. 자기 식당이 쉬는 날이면 꼭 생선 매운탕을 먹으러 그리로 온다며 "The best fish soup in the whole world" 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

도미든 대구든 각 생선의 독특한 맛을 살리면서도 매콤하게 끓이는 우리의 생선 찌개와 비린내를 제거하려다가 생선 특유의 맛까지 압도해 버리는 걸쭉한 Creamy Fish Soup과는 애당초 짬이 안 되는 거다.

ICELAND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가의 풍경이 삭막하기 그지없다. 한참 동안을 작은 수풀도 나무도 볼 수가 없이 검푸르죽죽했다.

처음엔 툰드라 지대의 동토(凍土)라서 초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양이로구나 했다. 알고 보니 부드러운 토양이곤 없는 시꺼먼 화산암 벌판을 누르 푸릇한 이끼가 덮고 있는 거였다. 땅 넓이는 남한보다 약간 큰데 인구는 35만 정도 밖에 안 되는 나라. 참으로 작은 나라다.

20여년 전에 함께 일하던 아이슬란드 출신 마취과 의사를 이름만 가지고 찾을 수 있느냐고 재미 삼아 물었더니 가이드가 금방 찾아서 통화를 하게 해 준다. 지금 골프를 치고 있으며 게임을 끝내고 만나잔다.

이 나라의 수도인 Reykjavik(레이키아비크)의 전(前)시장(市長)은 프로 코메디언이었다. 당선이 되면 공공 수영장의 타월을 공짜로 쓰게 해 주겠다는 동 여러가지로 웃기는 공약을 해놓고는 "물론 당선이 되면 공약 같은 건 다 까먹을 것" 이라고 정치가들을 비꼬았는데 덜컥 당선이 되었다.

당선이 되자 자기는 정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고는 그 대신 전문분야의 보좌관들과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타월 사용비를 담감하기는커녕 두 배로 올리고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 등의 과감한 긴축 경제 정책으로 호응을 받았다.

대통령에 출마하라고 했더니 "Politics is poison" 이라며 사양했다.

전체 인구의 거진 절반이 수도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미 시장에 당선 되었을 정도면 능히 대통령에도 당선될 수가 있었는데도.

바로 큰 길가에 위치한 시장 공판에는 담장도 경비원도 없고 시장도 차에서 내려 집무실로 그냥 걸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여기에도 감옥은 있는데 주로 탈세범들이다. 감옥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다가 불이 담 밖으로 넘어가면 죄수가 담을 타고 넘어와 불을 집어 가지고 돌아간단다.

화산섬이라 Geothermal Energy와 수력 발전으로 에너지가 넘친다. 길거리 바닥에도 온돌처럼 열선이 깔려있다.

버스 투어로 Natural Wonder를 몇 군데 가 보았지만 모두 규모가 약소했다. 투어 가이드가 Gullfoss라는 폭포를 보여주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나아가라 보다 낮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모두들 시큰둥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Geyser도 가 보았지만 Yellow Stone에 비하면 소꿉장난이었다. 위도 66도의 추운 땅을 뚫고 뜨거울 물이 샘솟고 김을 뿜어내는 게 신기했지만 신홍식의 말대로 그저 "김새는 땅" 일 뿐이었다.

같은 이름의 영화 주인공 Brook Shields 가 연상이 되어 그런지 이름만 들어도 섹시한 "Blue Lagoon" 에 기대를 걸고 온천욕을 하러 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우중충한 날씨였다.

여행 기간 중 하도 비가 자주 와서 Midnight Sun은 커녕 Mid-Day에도 해를 본 날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였다.

"중국 관광객이 이미 수백 명 들어가서 목은 때를 벗겼을 꺼" 라고 누군가가 이미 초를 친 마당에 막상 들어가 보니 물도 뜨듯 미지근하다. 온천이라면 유황 냄새가 확 풍기고 들어가 앉자마자 뱃속 저 깊은 데에서 "어~! 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올 정도로 뜨끈뜨끈 해야 되는 건데 말이다. 설마 땀국물이야 아니겠지 만 물 빛깔도 Blue는 커녕 푸른 우유 빛이라 물에 담긴 손이 보이질 않는다. 실망스러웠지만 그것도 잠시, 실리곤 팩이니 앨지 팩(Algae Pack) 이니를 발라서 하나같이 광대 같은 얼굴에 맥주도 한 잔 씩 걸쳤었다 금새 기분이 확 풀려 버렸다.

"홍광신이 덕분에 우리가 호강한다. 예과 들어 올 때 너희들 하고 이렇게 비 오는데 별거벗고 놀게 될 줄을 꿈이나 꾸었겠나? 딴 데도 아니고 이런 황량한 데서?"

무릅없이 깔겨거리는 중에 가슴 뭉클해지는 감회가 솟는다.

뻘에로의 분장에 내비치는 해맑은 소년의 얼굴들. 잊었던 어제와 오늘이 만나는 순간이다.

물이 더 더워 졌나?

God bless us, 우리 모두 100살까지 살자, 이대로.

아이슬란드 투어는 홍광신이 주선했고 노르웨이는 출 초이(Choi Chul)가, 식당 예약과 포도주 선택은 이견일이 맡아서 해 주었다. 믿음직한 일꾼들이 나서서 빈틈없이 긴 여정을 꾸려나가 주었고 정정하신 마나님네들이 어미 닭처럼 앞뒤를 보살펴 주는 바람에 나는 그냥 먹고 마시고 졸졸 따라 다니기만 하면 되는 세상 편한 여행이었다.

한식 금단 증상을 다스리기 위한 고추장, 라면 등은 신홍식 부인이 자원 봉사했다. 고추장, 라면 뿐만이 아니었다. 곰탕, 월남국수, 김, 육포, 군만두, 빈대떡, 소고기완자, 칼국수, 멸치볶음, 오징어채 볶음, 단무지, 누룽지 등등 찾는 대로 어디서인지 무진장 나왔다.

손도 크고 마음도 큰 사람이다. 여행이 끝날 때 까지도 다 먹어 치워 드리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동물 사랑

허선행 (64, 대뉴욕)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고-
 이 말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말씀중의 하나
 사람은 동물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서
 사람은 식물도 아끼고 가꾸어 주어야 한다면서- 필요할 때만
 사람은 미생물을 늘 멀리하려고... 미생물이 인간과 생물에 주는 거대한 혜택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집 앞 뒤뜰에서 5-6 마리의 사슴이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새는 저 잘 생긴 동물들을 어떻게 쫓아내나를 궁리하게 되었으니 내 삶의 위상이 상승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크지도 않은 우리 집 정원이 사슴들의 놀이터가 되고 식탁이 되고 변소가 돼버리니 동물애호가들이 무엇이라고 협박을 해도 때로는 어떻게 처리해볼 궁리도 했었다.

특히 안사람하고 애들이 공들여 심어놓은 채소나 꽃과 나무들을 깨끗이 먹어 버렸거나 망쳐놓았을 때 말이다.

미국의 저명한 외과 의사였던 William Halstead는 1895년에 Johns Hopkins에서 생체실험(vivisection)을 시작해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사 과정의 하나로 만들었다.

1900년도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의

과 대학이 이 학사과정을 따르게 되었으나 동물 애호가들의 끈질긴 권유로 1987년에는 단지 32%의 의과대학만이 이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한다.

1900년 중반에 Johns Hopkins에서는 개 대신 돼지로 바꿨는데 개보다는 돼지가 훨씬 싼 값에, 물론 돼지와 배이콘 그리고 삼겹살로 이어지는 돼지의 수난 시대는 일단 접어놓고, 결국 2016년에는 돼지로 해왔던 이생체실험마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이것이 동물애호가들의 노력의 덕이었는데 이렇게 열심이 일 해온 동물 애호가들에게 어떻게 찬사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동물도 동물 나름이지 우선 어느 정도 덩치가 커야 동물애호가들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실험실 사용하는 조그마한 동물들은 보호 받

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소 동물 애호가들이 나와서 큰 동물 애호와 한 바탕 붙는 것은 아닌지.

공식적으로 큰 동물 생체실험이 100년이 넘으면서 수많은 일화, 애석함, 잔인함이 있었을 것으로 믿으며 과연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한 생체실험은 없었을까? 누구에게 여쭙어 보다가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겠지! 아니면 Google에다가...

지금껏 그리고 지금도 실험대 위에서 사라져 가는 동물들에게 우리 인간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아예 모르고 살아야 하는는지!!!

그러다 보니 나도 동물 애호가 되는 기분이다.



짧은 인생을 당돌하게 제 주장대로 살았던 여자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림 그리고 그리고 죽어 간 개인 집을 미술관으로 개조했다. 청색 담장에 난 자그마한 문을 들어서면 별데서 다 입장료를 챙기네 하는 느낌이 여행객의 파라노이아를 살짝 건드린다. 허름하다. 참 별거 없어 보인다. 약간 떠들썩하게 살았던 편이 아닌가. 그리고 死後에 오히려 생존시보다 더 떠들썩하지 않은가 하는 평판의 프리다 칼로의 뮤지움치고 고즈넉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한평생 아픔과 슬픔을 반려삼아 살았던 또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했던 따라서 밖에서 보기가 어쩐 건 내면으로 한없이 외로울 수 밖에 없었던 한 예술가가 살았던 곳을 번들거리게 할수는 없는 거긴 하겠다. 그렇다. "살았던" 집이다. 그냥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 집에서 태어났고 소아마비를 앓았고 전차사고를 당했으며 보이프렌드도 품었고 남편도 품었고 情夫 情婦들도 품었던 아니 삶 자체를 품으며 "살았던" 장소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그림들을 임대하고 출산했던 장소, 그 장소가 아무 허세 없이 우리를 맞는다. 스스로없이 안을 보여준다. 이 "꾸밈없어 봄" 이 계산된 건지 혹은 자연스레 나온건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건 나는 이 허름함 소박함에 압도되고 만다.

첫 번째 방에서 눈에 띄는 건 프리다가 남편 디에고에게 생일선물로 주었다는 연필/목탄으로 그린 자화상이다. 얼굴 도처에 지지직 균열들이 간 스스로의 두상(頭像)이다. 머리는 균열들로 와르르 부서지기 직전, 스캐폴드로 간신히 지탱되어 있다. 그리고 균열마다 날자가 적혀있다. 디에고가 바람핀 날들이다. 아니 바람피다 걸린 날들이다. 디에고의 여성편력은 거의 강박적이었다 한다. "오줌 누듯이"가 자신의 정사에 대한 그의 표현, 수많은 여인들이 그의 발아래 몸을 내던졌다 한다. 그래도 이 두상은 엄살끼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혐의가 짙다. 왜냐? 프리다 또한 남편 버금가게 남녀 가리지 않고 애정행각을 펼쳤을 만큼 먹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가.

그녀의 먹성에 대해서는 여러 낭설들이 떠돌고 있다. 디에고, 샌프란시스코에 잠시 머물던 중, 프리다의 건강이 악화된다는 소식을 접한다. 프리다를 미국으로 데려와 입원시킨다. "나는 디에고를 보는 순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 병이 다 낫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이런 기분도 프리다의 다음 정사를 방지하지는 못한다. 입원중 병상에서 소년같은 젊은이와의 정사가 시작되는 거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그녀의 傳記 작가의 다음과 같은 말에 고개를 주억거리게 하는 일화다. "her motto was 'make love, take a bath, and make love again'" 살

아남았다는 것이 기적인 전차사고 후 프리다는 서른 번이 넘는 수술을 받는다. 의사 연인이 줄잡아 서른 명은 넘지 하는 말도 떠돈다. 트로츠키와의 정사는 유명한 거지만 트로츠키의 여비서도 놓치지 않았다. 자신을 초대한

르셋이다. 열기설기한 의료용 코르셋만 입은 프리다의 裸身, 못 같은 파편들은 아픔의 징표다. 코르셋이 아니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척추는 지진에 와지직 부서지고 있는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대체했다. 눈에는 눈물이 슬프

당돌하게, 혹은 발칙하게

프리다 칼로(Frida Kahlo) 미술관(멕시코 시티) 관람기

김창남 (69, 대뉴욕)

게 영롱하다. 머리에는 헤겔과 맑스를 마구잡이로 꾸겨 넣고 몸엔 보이프렌드를 통째 집어넣으며 (하다못해 벽장 속 같은데서 마저도) 주체 못하게 터져 나오는 생명력을 분출시키던 열아홉 나이의 프리다는 그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한 덩어리의 에너지였다. 척추가 부서지고 갈비뼈가 산산 조각이 되고 조각난 골반골은 자궁을 꿰뚫고 한견 아마 전차 충돌사고의 결과라기 보단 에너지 덩어리의 폭발사고였는지 모른다면 詩의 正義(poetic justice)의 남용이긴 하지만 당시의 프리다를 어느 정도는 표현해내고 있다고 하겠다. 사고이후 아픔과 슬픔은 차라리 프리다의 삶의 일부가 되고 만다. 외면하려도 외면할래도 한사코 들이닥치는 아픔과 슬픔? 내가 테킬라를 마시는건 이 놈들을 익사시키기 위해서지. 헌데 이 놈들이 수영하는법을 배워버렸어 하는 言明은 그녀의 경험의 파편인 까닭에 단순한 재치를 넘어서는 날카로움이 비수처럼 슬프게 번뜩인다. 천고의 시름을 씻어내고져 연거푸 백병의 술을 마시노라 (滌蕩千古愁 留連百壺飲) 척탄전고수 유연백호음) 읊은 이태백의 詩想이 모종의 관조를 요구한다면 프리다의 언명에선 긴박하고 즉각적인 절절함이 번져온다. 사고를 비상(飛翔)시켜 본다. 아픔과 슬픔은 어떤 한계를 넘으면 현실감을 잃게 되고 마는건 아닌가? 아마 그 현실감의 붕괴 때문에 프리다의 슬픔과 아픔은 초현실적/미술적사실주의적 뱀새를 풍기는 그림으로 변용 상징화 될 수 밖에 없었던게 아닐까. 프리다 스스로는 초현실주의 작가가 아니라고 항변하기까지 했다. 나는 꿈 따위를 그리진 않아. 오직 나의 현실을 그릴 뿐이야. 초현실 주의가 이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무의식의 자유로움, 그 무한한 에너지에 대한 욕심이 쟁점이었다면 프리다는 결코 초현실주의 화가가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을 보면 현실적이라기엔 너무 생소하다. 때론 생소를 넘어 과기하기까지 하다. 남편과 프리다 동생의 정사, 그 고통스런 경험 후에 그랬다는 "Memory,



the Heart"에선 팔 없이 옷소매만 있는 프리다가 무표정해서 더욱 섬뜩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는 중에 선혈로 대지를 흥건히 적시는 시뻘건 심장이 땅바닥에 나뭇굴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또 다리 절단수술 직전에 그랬다는 "다리, 날개가 있는데 네가 무슨 소용있어?"에선 절단된 다리가 꽃병처럼 서있고 가시달린 철사가 몇 오라기 핏빛 붓자국으로 처리한 배경으로 꽃가지인양 휘어내리고 있다. 모두 아픔이란 지극히 구체적 현실들을 그렸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초현실주의의 旗手 앙드레 브레통의 눈에 띄어 뉴욕에서 또 파리에서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갖는다. 예술의 변방도 못되는 멕시코 의 젊은 무명 여화가가 오로지 그 뚜렷한 개성 하나로 당시 전 세계의 화가들이 꿈에 그리는 파리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루브르(Louvre)가 주더브름 별관을 위해 그녀의 작품을 구매하고 칸딘스키 피카소 뒤샹 등으로부터 찬사를 받는다.

열아홉살때 당한 전차사고 이래 30여 차례이상의 외과수술을 받는다. 아픔과 병원은 문자 그대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된다. 아픔을 사랑과 연계시키며(엄마 아빠는 내가 아플 때 날더 사랑해)타인으로 부터의 관심 동정 연민으로 유발되는 쾌적(?)함에 익숙해진다. 병에 아픔에 질질 끌려가는 대신 그들을 객체화한다. 이를 테면 아픔아/꿈아터진 발가락아 밤새 잘 잤는가? 등의 자제다. 감염된 상처에서 나오는 시퍼런 고름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녹색인가! 감탄한다. 스스로의 증세를 과장하기 시작하고 치유를 지연하는 등 병에 아픔에 순순히 농락당하길 거부하다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마감하는 날까지 그녀는 코티분을 발랐으며 립스틱은 언제나처럼 마젠타 레드였대나? 이건 허영인가 저 항인가? 死因은 폐경색증. 하지만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는 걸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단다.

밀려오는 현실을 혹은 운명을 또 그로인한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불안을 기껏 스캐폴드-그림, 사회활동, 연인들의 시선- 몇 개로 버티어보려 안간힘 쓰던 여자, 제 주장대로 살려고 고집부리며 당돌하게 혹은 발칙하게 살았던 여자 누구에게도 보다는 운명에게 당돌하게 맞섰던 이 여자의 집에서 나는 지금 스스로를 감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사람들의 정서엔 다소 생소한 색깔인 짙은 청색의 벽, 셋노란 의자와 남국의 따가운 햇살이 지어내는 미술관 內庭의 분위기가 그다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걸 보니. 코발트 블루는 꼭 그 짙음이어야 할 것 같고 노랑은 꼭 그 밝기여야 할 것 같고 햇빛은 꼭 그런 강렬함으로 정수리에 내리 쬐어야 할 것만 같다. 어디선가 마젠타 레드의 입술이라도 푹 튀어나오면 어찌지!

시말서

강창욱 (61, 메릴랜드)

운동주의 시 참회록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슬픈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라는 구절이 아직도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정치적 뉴스를 보면 인신공격으로 대중 미디어를 채운다.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임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The Prince)'에서 통상 일어난다는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학설로 근친상간의 의욕이 무의식에 있다는 학설로서 세상의 도덕관념을 뒤집어 버렸다. 이는 다윈이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고 한 만큼 당황하게 한 학설이었다. 감정의 억제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며 마치 자유분방함이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은 사상을 조성 하였다. 사회적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것은 보수적

사상을 갖은 케케묵은 소리로 미루어 버린 것 같다. 학교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왕따현상을 고발한다고 하지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왕따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을는지 궁금하다. 이런 현상이 일부의 대중을 괴롭게 한 이유가 변화에 발마추기가 힘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에 말끝마다 'Moving forward'라는 말끝을 채우는 것을 본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진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 대중의 참 뜻이라면 그냥 따라야만 하는지 모른다.

내 기억으로 어릴 적부터 부모의 가르침을 어기면 벌을 받았다. 일정시대는 수심(修身)이라고 해서 사회질서를 책으로 배웠고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생활'이라는 교재로 배웠다. 도덕이라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집에서 배운 것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 차이가 상당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같다. 미국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믿은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정신의학에서의 진단명의 변천까지도 사회 변천에 따라 1960년의 중병으로 취급한 것이 지금은 그 범주를 고쳐 아주 미지근한 진단명으로 바꾸어 버렸다. 한번

은 한 유치원 아이의 이마에 붉은 점이 있어 유치원 모모가 '이것 아빠한테 야단맞았구나.' 하는 말에 아이가 고개를 꺼덕였다. 그것을 부모의 확대라고 판단하여 그 아이의 부모는 정신의학적 상담을 받으라는 관정이 나와 필자를 찾아왔다. 그 부모는 필자가 보기에는 참으로 착하며 이상적인 가정을 만든 사람들이었다.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해 그 붉은 점을 이마에 갖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점점 도덕이니 윤리라는 것들이 불투명하게 된 것에 너무도 놀라웠다. 필자의 아버지께서 해방 후의 한국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피하려 사법서사를 하셨다. 고객들이 자주 위탁한 것이 '시말서'라는 것이었다. 잘못을 저질러 법의 처벌을 받는 한 방법이였다.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질리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그러나 차츰 그 잘 잘못의 기준이 상상하기 어렵게 변화하고 있다.

1990년경 뉴스워크지에 미국인들의 교회 참석수가 늘어난 현상이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이유가 삼사십대의 부모가 아이들의 도덕을 가르치려는데 표본이 없어 교회에서는 전통적 도덕과 교훈을 가르치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공공교육에 대한 신랄한 비평이 아닐 수 없

다. 당시의 교육노조는 진보의 앞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랄 사실이 아니었다. 아직도 교회가 부모와 학교를 대신해서 도덕과 사회 질서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믿은 것이다.

최근에 동창들의 이동이 눈에 띄게 보였다. 최근에 필자가 잘 아는 동창의 세 가족이 아들과 딸들이 사는 곳에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였고 작년엔 동기 두 사람은 자녀들과 합쳤다. 필자는 이 현상에서 우리 동창들이 한국에서부터 지니고 온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향한 책임감, 가족 간의 사랑,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윤리를 그대로 실천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어제 뉴욕에서 첫 손자의 고등학교 졸업식엔 다녀와서 내 맘을 채운 것이 기쁨만은 아니었다. 물론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이 복잡다단한 사회를 헤쳐나가겠지만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필요 없는 걱정이기를 바랄 수 있을까? 걱정이나 불안이 아닌 속고나, 기도니 참선 같은 것 이외에 이 무섭게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젊은 부모들의 불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나는 시말서를 몇 장은 더 써야 될 것 같은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感懷(감회)가 새롭구나. 6km의 산보가 즐거운 밤이었다.

<其二>

蘇東坡(소동파)의 赤壁賦(적벽부)

입술년 가을 7월 기망(16일)에 소동파가 손님과 더불어 적벽 아래서 노닐 새, 청풍(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 오고 물결은 일지 않더라. 나와 손님이 술잔을 들고서, 명월의 시를 낭송하고 요조의 장을 노래했노라. 잠시 후, 동산 위에 달이 솟아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를 배회하더라. 백로(흰 이슬)는 강에 비끼고 수광(물빛)은 하늘가에 닿았더라. 우리가 타고 있는 한 조각의 작은 배, 가는 대로 맡겨서 드넓은 공간을 넘어가노니,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모습이 마치 허공에 의지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듯. 어디서 멈춰서야 할 지 알 수가 없네. 인간세상 다 버리고 나 홀로 서서, 우화등선하는 것 같구나.

壬戌之秋(임술지추) 七月既望(칠월기망)에, 蘇子與客(소자여객)하여, 泛舟遊於赤壁之下(범주유어적벽지하)할 새,

淸風(청풍)은 徐來(서래)하고 水波(수파)는 不興(불흥)이라. 舉酒屬客(거주속객)하여, 誦 明月之詩(송 명월지시)하고 歌 窈窕之章(가 요조지장)이러라. 少焉(소언)에, 月出於東山之上(월출어동산지상)하여, 徘徊於斗牛之間(배회어두우지간)이더라. 白露(백로)는 橫江(횡강)하고 水光(수광)은 接天(접천)하도다. 縱一葦之所如(종일위지소여)하여, 凌萬頃之茫然(능만경지망연)이라, 浩浩乎(浩浩호호)라, 如憑虛於風(여빙허어풍)하니, 而不知其所止(이부지기소지)로다. 飄飄乎(표표호호)라, 如遺世獨立(여유세독립)하여, 羽化而登仙(우화어등선)이로고.

*羽化登仙: 사람이 날개가 돌아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는 뜻.

宋나라의 유명한 文章家이자 政治家였던 蘇東坡가 달 밝은 밤에 객과 함께 적벽 아래서 뱃놀이를 하면서, 人生의 덧없음을 깨닫고 시름을 잊는다는 것이 赤壁賦의 내용이다.

赤壁하면 三國志에 나오는 赤壁大戰이 떠오르고, 孫權(손권) 휘하의 名將 周瑜(주유)와 劉備(유비)의 책사 諸葛

亮(제갈량)의 지략과 火攻戰略(화공전략)으로 曹操(조조)의 백만대군을 박살낸다. 빈 배로 십만 개의 화살을 구해오는 제갈량의 지해도 있을 수 없는 대목이다. 赤壁歌는 우리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이고, 赤壁大戰의 顛末(전말)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적벽대전(赤壁大戰)의 赤壁 이 글은 黃州에서 유배생활을 할 적에 지은 것으로, 起承轉結(기승전결)의 "起" 부분이다.

賦(부)란 일정한 수의 漢字를 사용하여 韻(운)을 달고 對(대)를 맞춰 짓는 글이고, 賦 중에서는 적벽부가 가장 유명하다고 본다.

唐代와 宋代에 걸쳐 유명했던 文章

家를 통틀어 "唐宋八大家"라 일컫고, 이 8명 중에 蘇軾(소식: 東坡)뿐 아니라, 아버지인 蘇洵(소순)과 아우인 蘇轍(소철)도 포함되었으니, 蘇氏집안의 DNA가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3父子를 "三蘇"라 부른다.

中國古典文學을 논할 때 漢文, 唐詩, 宋詞, 元曲(한문, 당시, 송사, 원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漢나라 시대에는 文章, 唐나라는 詩歌, 宋나라는 歌詞, 그리고 元나라는 戲曲(희곡)의 全盛期(전성기)라는 뜻이다.

소동파는 中國文學史에서 古今을 막론하고 그를 따를 사람이 없는 대문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唐詩의 大家인 李白(이백)과 杜甫(두보)도 詩 장르에서는 각각 詩仙과 詩聖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지만, 다른 장르의 문학에서는 그리 후한 점수를 얻지 못한 반면, 소동파는 시(詩), 사(詞), 부(賦), 산문(散文), 문장(文章) 뿐만 아니라 서예(書藝)와 그림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 李杜(이두: 이백과 두보)가 唐宋八大家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농담 골목

새로 교회에 온 목사가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천당에 갑니다." 라고 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엄숙한 표정을 취했다. 그런데 창문가에 앉아 있는 젊은 청년 하나는 아무런 표현이 없었다. 목사가 혹시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들은 모두 천당으로 갑니다." 라고 되풀이 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설교를 끝내고, 목사가 그 청년에게 가서 "왜 아무런 표현도 없었는지?" 라고 물었다.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직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노용면)

(우리 시계탑에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글은 피하겠끔 되어 있다. 위에 쓴 농담은 종교적인 글이 아니다.)

오래 전, 한국에 나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른 새벽, 아내와 같이 북한산 둘레길 걷기를 마치고 하산하던 중 길 옆에 있던 쪽문에 한문으로 多不有時 라고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많고, 아니고, 있고, 시간? - 시간은 있지만 많지 않다는 뜻인가? 누가 이렇게 심오한 뜻을 문에 적어 봤을까? 분명 학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탁월한 분이겠지, 도사같은 분을 한번 만나 봐야지! 하고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옆집에서 런닝셔츠 차림의 할아버지가 나오자 마자 나를 흘깃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이, 거기서 뭐하는거야?"

"아, 예, 여기 사시는 분을 좀 만나 뵈려구요."
"거긴 아무도 안 살아."
"이 '사자성어'를 적으신 분을 뵈려 하는데..."
"그거? 그건 내가 적은 거야."
"네? 그러세요. 뵈고 싶었는데요. 할아버님, 여기가 대체 무슨 문 입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화장실이야."
"넛? 여기가 화장실이라고요? 그럼 문에 적힌 多不有時란 뜻은 뭡니까?"
"아, 이거? 참 내! 다불유시(WC)야. 다불유시! 보아하니 좀 배우신 분 같은데 그것도 몰라?" - (이덕승)

風流(풍류)

정양수 (66, 조지아)

풍류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조선시대에 갖을 쓴 閑良들이 妓女(기녀)들과 함께 술관을 벌리며 詩를 읊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이런 것만을 풍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립에 따라,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으나,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읊거나 흥이 나서 흥얼거린다거나 노래를 한다던가... 이런 것 아니겠는가.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浪漫的(낭만적) 환경에서 자기만족을 위한 예술행위는 모두 풍류라 부르고 싶다. 거기에는 情緒(정서)를 高揚(고양)하거나 韻致(운치)를 더할 수 있다면 錦上添花(금상첨화)일 것이고.

<其一>

吟風弄月(음풍농월)

이른 저녁을 먹고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초저녁에 동네 산보를 나갔다. 할멈과 정다운 얘기를 나누면서 손은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달이 점점 밝아지면서 곁에 火星(Mars)이 바짝 붙어오는 동안, 金星(Venus)은 서쪽으로 많이 기울었구나.

Smart phone으로 쇼광의 piano 음악을 몇 곡 듣다가 蘇東坡(소동파)의 赤壁賦(적벽부)를 한번 읊어보았다.

이번에는 흘러간 옛날 노래로 방향을 바꿔서, 1937년에 탄생한 海島曲(해조곡)을 들어봤다. 필자가 중딩일 때 도 많이 유행했던 노래니, 우리 가요 중에서도 長壽하는 명곡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곡을 지은 이는 "타향살이 몇 해던가"와 "목포의 눈물"을 작곡한 孫牧人(손목인) 씨, 손목인이라는 藝名 외에 楊想浦(양상포)라는 이름도 썼다. Youtube로 이 가수 저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시켜보는다", 이난영부터 김용임, 최유나, 이미자, 금잔디, 주현미, 문희옥, 최진희 등 열댓 명 중 優劣(우열)을 가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은 최유나가 1등, 주현미가 2등, 금잔디가 3등.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지난날을 回想(회상)하고, 흘러간 옛 노래를 듣자니

누기

노영일 (68, 시카고)



누가(Lucanus)는 의사였고 화가였으며 글을 잘 썼다. 그는 신약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성인(聖人)의 반열에 올랐지만 나는 성인으로서의 누가 보다 인간 누가에 더 관심이 쏠렸다.

누가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 정확히 말하면 해방노예의 아들이다.

그리스는 로마와의 전쟁에 패하여 그 국민은 로마인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는 로마보다 훨씬 문명이 앞섰으며 그리스인들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문화인 이었다. 누가의 아버지 아에네아스(Aeneas)와 어머니 이리스(Iris)는 그리스인 이었으며, 시리아 지역 호민관 프리스쿠스(Priscus)의 노예였다. 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였다. 그들이 성년이 되자 프리스쿠스는 그들을 결혼시키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자유인(해방노예)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주인을 떠날 수도 있었으나 계속 프리스쿠스 집에 머물며 그의 가사를 돌보았다. 그들 사이에 누가가 태어났다.

프리스쿠스에게는 디오도루스(Diodorus Cyrinus)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는 로마에서 사관학교를 나와 군인이 되었고 전쟁터에서 많은 공을 세워 호민관(tribune)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프리스쿠스가 죽자 시리아 지역 총독이 되어 안디옥 자택으로 돌아온다. 그는 로마 귀족의 딸과 결혼하여 루브리아(Rubria)라는 딸을 낳았다. 누가와 루브리아는 같은 나이여서 어려서부터 함께 뛰놀고 공부도 같이 하며 컸다. 루브리아가 성년이 되어 로마의 귀족 집에 시집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만 백혈병이 걸려 죽는다. 누가는 루브리아를 살려달라고 알지 못하는 신(unknown God)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죽자 그는 신을 저주한다. 루브리아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그의 첫사랑이었고 그녀에 대한 연모 때문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된다.

어느 해 큰 홍수가 났는데 주인집 재산을 하나라도 더 구하려 애쓰다 누가의 아버지 아에네아스는 물에 떠내려가 죽는다. 그 무렵 디오도루스의 아내 아우렐리아(Aurelia)는 아이를 낳다 난산으로 죽게 된다. 어린아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프리스쿠스라 이름 지었다. 프리스쿠스는 이리스가 딸아 친엄마보다도 더 정성껏 키웠다.

이리스는 총명하고 뛰어난 미모의 여인이었다. 어려서부터 디오도루스와 함께 놀고 공부한 그녀는 디오도루스의 첫사랑이었으나 신분의 차이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홀아비와 과부가 된 처지였다. 갓난 아들 프리스쿠스를 정성껏 양육하는 이리스는 아기의 친엄마처럼 보였다.

디오도루스는 이리스의 마음을 떠보고 그녀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리스의 호적을 위조하고 그녀와 결혼한다. 그래서 디오도루스는 누가의 양아버지가 된다. 디오도루스는 누가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디오도루스는 영전하여 로마로 이주하게 된다.

누가는 어려서 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안디옥 항구에서 불쌍한 사

람들을 사랑으로 치료해 주는 의사들을 동경했다. 디오도루스는 누가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당시 최고의 의과대학에 보낸다. 그는 미남이었고, 총명하였으며, 뛰어난 의사가 된다. 그림도 잘 그려 미술교수는 화가가 되기를 권장했다. 그는 주로 고통 받는 환자, 특히 노예나 빈민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 요셉(Joseph ben Gamliel)이라는 종교학 교수로 부터 유대 땅의 범상한 소년(예수) 이야기를 잠깐 들었으나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의과대학시절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대부호의 딸 사라(Sara bas Elazar)를 만난다. 사라는 빼어난 미녀였다. 누가는 순간 그녀가 루브리아가 아닌가 착각하였으나 그녀는 루브리아가 아니었다. 사라는 그 후 변함없는 사랑으로 줄곧 누가를 따라다녔으나 누가는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청혼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가슴속의 루브리아를 지워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로마의 집으로 가는 배를 탔다. 양아버지가 붙여준 가정교사이며 역시 그리스인 노예인 쿠사(Cusa)와 동행하였다. 배에서는 디오도루스의 아들이라고 귀빈 대우를 받았다.

항해 도중 매일 밤 하갑판의 노 젓는 노예들이 하나 둘씩 죽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다. 배에는 노란 깃발이 달렸다. 알고 보니 노예들이 흑사병에 걸려 죽어나가고 있었다. 선장은 하갑판 문을 자물통으로 잠가버리고 선의(船醫)도 못 내려가게 엄명을 내렸다. 흑사병이 상갑판 손님들에게 전염되면 큰일이었다. 누가는 의사로서 사람들이 병으로 계속 죽어나가는데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자기가 하갑판에 내려가 노예를 치료하겠다고 하자 선장은 필쩍뿔며 귀빈실에 가두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한다. 사실 선장은 누가가 죽으면 로마에 가서 디오도루스에게 받을 엄청난 별이 겁나기도 했다. 하갑판의 노예들은 몇 명이 죽어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쿠사는 자물통을 여는 재주가 있었다. 밤에 몰래 쿠사를 시켜 하갑판 자물통을 열게 하고, 비록 물리지 않게 몸에 형질을 칭칭 동여매고 하갑판에 내려갔다. 비참한 광경이었다. 증세나 소견이 틀림없는 흑사병이었다. 쥐를 보는대로 잡아죽이라고 하고, 소독약을 뿌리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후 죽는 노예가 없었다. 선장은 선의가 오진을 하였고 흑사병은 없었다고 기뻐하며 노란깃발을 내리라고 했다. 하갑판의 노예들은 밤중에 몸을 감싼 아폴로가 내려와 자기들을 살려주었다고 믿었다. 쿠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에 들어가 환자치료를 한 누가의 인술에 감동하여 옆드려 그의 발에 입 맞췄다. 누가 자신은 자기도 흑사 오진을 하지 않았나 의심을 했다. 흑사병이 그렇게 빨리 퇴치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디오도루스는 강직한 군인이었고 애국자였다. 그는 원로원에 나아가 원로원 의원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히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원로원 의원들의 미움을 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불려갔다. 티베리우스는 디오도루스의 사형을 명한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디오도루스와 여러번 함께 사선을 넘은 전우였고 디오도루스가 얼마나 애국충정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황제도 정치적인 상황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명하였으나 그의 죽음을 가슴 아파했다.

누가가 로마에 도착하니 양아버지 디오도루스는 사형당하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있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황제는 디오도루스 가족에게는 일체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재산도 보호해 주었다. 누가가 로마에 왔다는 보

고를 듣고 누가를 불러 황실 수석의 사직을 맡아주겠다고 물었다. 이는 그 당시 의사로서 최고의 영예였다. 그러나 누가는 사양하고 자기는 가난하고 꺾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한다. 황제는 그림 6개월만 일해보고 그래도 사양하겠다고 보내주겠다고 한다. 황명을 어기면 죽음이었으므로 그는 황궁에 들어간다. 티베리우스는 친히 자기 직인이 찍힌 반지를 하사한다. 그 반지 하나면 그 당시 어디 가나 안 통할 것이 없었다.

황비 줄리아의 파티에 초대받았다. 줄리아는 아우구스투스의 혈통을 받은 황족으로 호민관 출신인 티베리우스보다 훨씬 세력이 컸다. 티베리우스는 황제가 되기 위해 진정 사랑했던 분처를 버리고 줄리아와의 정략결혼을 강요당했던 것이었다. 줄리아는 오만하고 안하무인격이었으며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그녀를 싫어했다. 누가는 줄리아의 옆자리에 앉았다. 꽃미남들은 줄리아의 반대편에 옆에 앉았다. 산해진미에 선정적인 음악과 춤사위가 한바탕 끝나고 나면 모든 불이 꺼진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남녀가 얽혀 혼음을 하는 그런 파티였다. 황비와 누가 사이에 꽃미남이 끼어들었다. 순간 구역질이 난 누가가 꽃미남을 밀쳐버렸다. 꽃미남과 황비는 한 덩어리가 되어 소파에 넘어졌다. 이는 황비 특히 줄리아에 대한 불손으로 죽음이 틀림없었다. 누가는 필사적으로 암흑 속에서 뛰어 도망쳤다. 누가 그의 덩미를 잡았다. 근위대장 플로티우스(Plotius)였다. 그는 누가를 비밀 터널로 인도하여 자기 숙소로 데려갔다. 그는 자기는 디오도루스를 존경하며 그래서 그 아들인 누가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기다리라고하며 문을 잠그고 사라졌다. 누가는 그가 돌아오면 죽여 버리고 도망칠 셈이었다. 그러나 그 방에 디오도루스의 흉상이 있는 것을 보고 어느정도 그를 믿었으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동안 플로티우스는 티베리우스황제에게 가서 사실을 보고하고, 누가를 도망시켜 살려주라는 밀명을 받아온 것이었다. 그는 변장을 하고 비밀통로로 빠져나와 간신히 배에 올라탈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파티 현장에 있었던 꽃미남 하나는 독살당하고 또 한 꽃미남은 모진 고문 끝에 자기가 독살했다고 허위자백해 목이 잘렸다. 줄리아가 모욕당한 이야기를 영원히 묻어 버리려는 음모였다.

누가는 선의(船醫)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다. 배에 탄 상인들 노예들을 치료해 주고 잠시 정박하는 항구에서는 그곳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의 의술은 뛰어나서 명의로 소문났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환자들로 바글거렸다. 아테네에는 작은 진료소도 하나 차려 놓고 항해가 없을 때는 그곳에서 환자 진료를 하였다.

하루는 아테네 거리를 거닐다가 노예상인이 길거리에서 쇠사슬로 칭칭 감은 건장한 흑인노예를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흑인 노예는 병어리였으나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가는 그 노예를 사서 집으로 데려온다. 병어리였으나 글을 써서 보여주니 답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어 뿐 아니라 라틴어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써내려갔다. 이름은 라무스(Ramus)라 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아프리카 작은 나라의 왕세자였으며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 이었다. 그는 왜 함(Ham)의 후손(흑인)들이 저주를 받아 노예나 가난한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면 그 저주를 풀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얻으려 아테네에 왔다

고 한다. 부하 여러 명과 금은보화를 한 켤짝 들고 왔는데 아테네에 오자마자 몽땅 강도에게 뺏기고 부하들은 다 노예로 팔려갔다. 그 충격으로 그만 실어증에 걸려 거리를 헤매는데 그도 잡혀 노예시장에 팔렸다고 한다. 누가는 그를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나 라무스는 떠나지 않고 누가를 따라다니며 그의 조수 노릇을 했다.

누가는 의술이 뛰어났는데 열가로 치료를 해주니 아테네의 다른 의사들의 미움을 받는다. 누가가 왕진간사이 평소 암시를 품었던 망나니가 자기 노예들을 끌고 와 진료소를 다 때려 부수고 라무스의 눈을 칼로 그어 버렸다. 집에 돌아온 누가는 이 난장판에다 거의 죽게된 라무스를 보고 격분한다. 우선 라무스의 눈을 치료해 주었는데 동공이 다 흩어지고 실명할 것이 틀림없었다. 아테네 의사회에 호소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테네 총독에게 달려가 호소를 하였으나 그런 흑인 하나 때문에 그리스인을 벌 주면 <다음면에 계속>

"Hello, ... 이러기를" - '정' 이나



이홍빈 (63, 대뉴욕)

정 이나
우리 못내
그놈의 정이나 (늘상)

세상 일은
뉘/무슨
어린 손주들/한참 이쁜 (하모)

친구는
뉘/무슨
격조 소원/멀어지는 기억 (암만)

사랑은
뉘/무슨
열정 열불/아지랭이 지평선 (어언)

정은 정은
뉘 아무썩/그놈의 정은 무슨
눈 이슬 아무데/머언 마음 (여태)

하늘에 우러러
아무썩/거기만
아무데/넌 머언 마음 (여직)

이 딱한 양반아
답답한 양반아
한심한 이 양반아
... 참 딱도한거이

운신이 이놈의 운신이
몸은 천근 만근
허리 끊어지고 무릎 엇가는데
뒤는 이놈의 뒷 실수는
마음이 늘창 즐창
특함 이리거 황당하기 일췌네

뉘 친구는 무슨
뉘 세상일 혹 뉘 철학은 또 무슨
사랑은 저놈의 끔찍한 사랑은 오묘신통
언제껏 화석/저 이쁜 어렸친국
...

정은
접어 접어 머언마음
챙길마음 지날 마음 남을까마는.

갑부의 죽음

이수인 (63, 남가주)

개 기르는 것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된 이유는 이렇다.

나를 좋아하는 실체가 또 하나 존재한다는 게 가상하기 이를 데 없다. 사람과 달리 퇴짜 없는 정을 준 사람에게 돌려준다. 정이 들어가면서 생명의 존엄을 더 이해하고 인간의 오만을 낮게나마 깨닫게 된다.

짜증나는 인간의 찌푸린 얼굴 표정이 없어 좋다. 그 대신 그들의 미학적 가치를 보게 된다. 동물들의 아름다움을 다시발견 한다.

이놈의 생리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 생활이 더 규칙적이 된다. 사실 개가 아니면 비가 오든 개인 날이든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있을라구. 어린 시절 밤에 나가 뛰어가면 쫓아오든 초생달을 쳐다보면서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있을까.

이웃 동료 개 동반자와 인사나 농담을 건넌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

어쩌다가 만나서 살다가 서로 얘기 꺼리가 없어진 부부에게 정적을 깨는 기회를 준다. Ego expansion을 위한 bravado로 충만한 인간사회에서 개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이에겐 자랑할 희열을 준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를 대하적 적 없었다. 어릴 적 가졌던 똥개를 내가 학교 간 사이에 아버지가 쓰는

목수들이 잡아먹은 후 개를 기른 적이 없다가 독일 셰퍼드를 잠시 가졌는데 개털이 통풍구를 통해서 온 집안을 채운 뒤 개는 이제 그만하고 약속 했었다.

LA를 갔던 아내가 어린 쇠쥬를 얻어 비행기를 타고 대륙 횡단을 해서 시카고에 온 것은 겨울이었다. 내 동의도 없이 한 가족이 되 버렸다.

어느 욕심 많은 아낙이 이 개 이름을 갑부라 하고 누이동생을 라토라 해서 벼락부자가 되는걸 획책했는지 아무튼 나는 갑부의 동행인이 되고



이것이 이놈과 영커버린 운명의 사유다. 서먹하던 이름이 자주 부르니까 익숙해지고 개도 좋아 하는 것 같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얼마나 갑부가 되고 싶으면 개 이름을 갑부라 했을까 의아해 하는 내 친구도 있었을 거다.

개들의 인간사회에서의 위상은 많이 나아진 게 눈에 보인다.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개도 있다.

자서전적 소설 첫 번째 사람(Le premiere homme)에서 까뮤는 dog-catcher 이야기를 회상한다. 배회하는 개들을 dog-catcher들이 잡아 죽이곤 했는데 주인공은 친구 베엘과 같이 개들에게 신호를 주워서 피해서 도망가게 한 이야기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들은 소모품으로 취급 당했던 모양이다. 까뮤의 이 어릴적 성향은 후에 La peste의 Tarrou의 긴 역설을 통해서 또는 기요틴에 대한 소고(Reflexion sur la guillotine)에서 정치적 폭력과 사형

제도에 도전하는 태도의 근간이 된다.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은 인간규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 그들에게엔 여간 고통스러운게 아닐게다. 인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개들은 어떤 인내가 필요할 것인가. 갑부는 옛 중국 황족에 속했던 선조의 전통에 따라 오랫동안 위신을 잘 지켜 주었다.

칼스바드에 이사 오면서 아내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갑부와 은퇴인은 홀로 남게 돼 개는 운동 내 몫이 돼 버린다. 끼니, 털깎기, 놀아주기, 걷기, 목욕. 쇠쥬는 영리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개들의 IQ는 2-3세 아이들과 비교되는데 나는 갑부의 IQ를 더 올려준다.

내 제스처를 보고 그것이 위험인지 장난인지 잘 알아맞힌다. 집안에 들어온 사람엔 절대로 짖지 않고 꼬리치며 달라붙는다. 색깔이 다른 흰 카펫이 있는 문도 없는 방에 한번 못들어 가게 하든가 얇은 천으로 만든 의자에 못 오르게 하면 이를 기억한다.

주인이 밖에 나가면 개가 depression 된다는 게 정설이라 했다. 기다림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나는 될수록 일찍 집에 돌아오곤 했다. 내 아이들에게도 하지 않던 배려였다.

내가 인터넷에 매달려 있을 때 머리를 다리사이에 박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꼴이 가여워 놀아주곤 했다. 갑부는 뉘말을 좋아했는데 라면이나 달걀 등 내가 먹는 음식을 얹어주면 꼬리를 치며 그리 좋아했다. 나는 이것을 십일조라 칭했다.

아내 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든 아내가 어떤 때는 경쟁하듯이 갑부를 모시곤 했다.

Malte는 이렇게 말한다.

-저 여인은 아기와 죽음을 동시에 임태 했다.

생명이 있는 한 이별의 약속은 전제돼 있는 것.

팔팔하던 놈이 입맛을 잃고 이가 빠지기 시작 했다. 그가 늙어간다는걸 알았다. 걸음이 뒤 처지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려는 때도 있었다. 문소리만 나면 뛰어내와 반기든 놈이 이젠 맞아주질 않는다.

아픔에 싸인 하루저녁 연방 토해 뱉는데 그 다음은 배가 단단하게 복막염 증세로 신음도 없이 가버렸다.

햇빛 환한 복숭아나무 밑에 수목장을 해줬다. 다음해에 핀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복숭아도 커 보였는데 이젠 갑부가 자연으로 돌아간 희망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인지도 모른다.

Antwerp에 있는 Flanders의 개 묘비나 술 취한 주인을 살렸다는 오수의 의견비처럼 묘비는 안 해 주었지만 그의 이름 Kappu는 인터넷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영구화 됐다.

내 슬퍼하는 꼴을 보고 아들이 똑같은 쇠쥬를 사줄 것을 제의했지만 사양했다.

- 두 번째 이별을 어찌 감당하려고. 내 친구와 어떤 택시 운전수도 같은 말을 했다.

- 한 생명은 다른 생명을 절대로 대체 할 수 없어.

계단에 앉아 머리를 내 무릎에 얹고 있던 흐뭇한 모습이나 그의 강렬한 네모진 눈망울과 활기차게 뛰든 모습, 꼬리 흔들며 애교떠는 정서린 생명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빛바래지 않은채 내 뇌리에 남아있다.

Adieu.

〈전면에서 계속〉 그리스인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날것 같아 목살해 버린다. 그러다 누가의 손에 끼어있는 우아한 반지를 보고 그게 무어냐고 물었다. 누가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하사한 반지라고 하자 총독의 태도는 급변하여 그 망나니를 당장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라고 명한다. 누가는 도리어 당황하여 사형까지는 시킬 필요가 없고 적당한 벌을 주라고 도리어 사정한다.

얼마후 라무스에게 감았던 붕대를 풀어보니 그의 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틀림없이 실명하였다고 생각했던 누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얼마 후 라무스는 유대 땅의 예수가 이야기를 듣고 자기 평생의 해답을 구하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를 만난다. 실어증도 고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나라의 왕이 되어 누가에게 자초지종을 편지로 알려준다. 누가는 또 항해도중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 상인, 등으로 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그는 히스테리 환자가 강력한 암시에 걸려 회복되었거나 오진을 했던 환자가 완쾌됐을 거라고 생각했다.

누가는 동생 (양아버지의 아들, 루브리아의 동생) 프리스쿠스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프리스쿠스는 유대총독 빌라도(Pontius Pilate) 휘하의 로마군 사령관이었다. 누가가 찾아가 보니 정말 프리스쿠스는 피골이 상접하여 죽기 직전이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대어 보였으나 암 일거라는 진단만 내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였다. 프리스쿠스는 어려서 부터 누가를 따랐으며 누가도 친동생같이 사랑하는 사이였다. 누가는 밤새도록 병상에 앉아 프리스쿠스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진두지휘한 로마군 대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목격했다. 프리스쿠스는 자기가 신을 죽였다고 믿고 있었다. 누가는 모

든 이야기를 다 듣고, 너는 예언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에서 하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고 너는 너의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니 벌은 받지 않을 거라고 말해준다. 그러자 프리스쿠스는 생기를 다시 찾아 다음날부터 밥도 먹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누가는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밤을 새워가며 낱낱히 기록하였다.

빌라도는 죽게 됐던 자기 부하가 완쾌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누가의 의술이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누가를 불러 치하하는 자리에서 그의 반지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냐고 물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빌라도는 반지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 반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황제는 확인정도가 아니라 친서를 보내 누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라고 하명하였다. 누가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법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한다.

빌라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대인 장례행렬을 만난다. 신혼신부가 죽었는데 그 신랑이 몹시 슬퍼하며 따라가고 있었다. 누가는 말에서 내려 그 신부의 손을 만지자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누가는 자신도 놀라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잠이 들어 있었나 보다 고 했다. 빌라도는 해지기전 장례식을 치루는 유대인 관습 때문에 멸절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혀를 찼다. 뿔뿔이 기뻐한 사람은 물론 신랑이었다.

빌라도는 헤롯 왕을 불러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법률을 취소하라고 명령한다. 헤롯은 안 된다고 하며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 또다시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헤롯을 파면하고 그 동생 빌립(Phillip)을 유대 왕으로 세웠다.

누가는 예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다.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보면 모든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말을 하나 얻어 타고 화구와 필기도

구를 꾸려 메고 나사렛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갈릴리해변 티베리아 (헤롯이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느라고 세우고 명명한 도시)에서 야고보 (James)와 요한(John) 형제를 만나 예수와 함께 다니며 일어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낱낱이 기록한다. 그리고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를 만났다. 그는 그녀의 사촌 엘리자벳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의 수태과정부터 십자가 처형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는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는 이미 48세의 할머니가 되었으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마리아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그후 그는 바울(Paul)을 만나 함께 기독교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적혀있다.

나는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껴 인터넷을 뒤졌다. 그리고 그가 화가였으며 글을 잘 썼다는 사실도 알아내고는 더욱 흥미를 느꼈다. Taylor Caldwell 의 Dear and Glorious Physician (Ignatius 출판사)를 주문하여 읽기 시작했다.

이 천년전의 이야기다. 작가는 철저한 고증을 한 후에 쓴 글이라 하지만 얼마만큼이 사실이고 얼마만큼이 픽션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흥미를 느끼며 읽었고 또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대만 달랐지 의사생활에서 겪는 고난, 보람, 애환은 너무나도 흡사하여 많은 공감을 느꼈다. 562쪽이나 되는 책의 내용을 간추리자니 몹시 힘들었다.

두 세대에 걸친 사회계급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이며, 또 첫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그렸다. 누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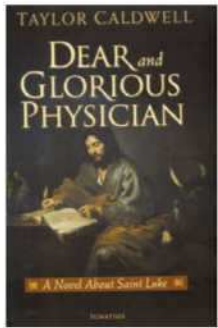
일생에는 네 여인이 있었다. 그를 낳아주고 희생적으로 사랑해준 어머니 이리스, 이루어질 수 없었으나 평생 가슴에 안고 있었던 첫사랑 루브리아, 열렬히 사랑하였으나 결실을 못 맺은 사라, 그리고 그의 영혼을 인도한 마리아였다.

부귀영화를 마다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준 누가의 인술은 쉽지 않은 선택 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희생과 봉사는 가장 어려운 사명이다. 과연 내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어 환자를 치료할 용기가 있는가.

의학(과학)과 종교(신비)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의사로 평생을 환자진료에 바쳤다. 동서양을 아울러 누구보다도 많은 환자를 치료했고 그만큼 많은 경험도 했다고 생각한다. 기적 같은 일들도 보았다. 그것이 우연이었나. 다만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나. 신의 조화인가. 현대 과학이 놀랍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감각과 지능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 바깥에 있는 무한대의 경지는 어떤 것인가. 신을 저주했던 의사 누가가 어떻게 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누가는 그림을 잘 그렸다. 현재도 유럽에는 누가의 이름을 딴 미술학원들이 여럿 있다고 한다. 성모 마리아의 실물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누가 하나 뿐이다.

누가는 글을 잘 썼다. 그래서 성경 전권을 통하여 누가복음과 사도신경이 가장 수려한 문장으로 되어있다. 바울이나 누가나 육신으로 예수를 만나 본 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초창기 기독교 전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누가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Gentile)으로 복음서를 쓰고 전도하여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제가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relman School of Medicine Clerkship Program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뛰어난 어린이병원 중 하나인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CHOP)에서 실습을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라는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 속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Covenant House와 협력하여 진료를 보는 청소년 의학 실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lerkship 배정 시스템 특성상 아래 순위에 있었던 Diabetes and Endocrinology program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UPenn의 또 다른 affiliated hospital인 Pennsylvania Hospital에서 한 달간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미국 의대 실습과 병원 생활이 어떤지 경험하는 것이 더 큰 그림의 목표였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을 품고 필라델피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 날, 미국 시차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힘입어 저는 아침 6시 반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오랜만에 하얀 와이셔츠와 양복바지를 입고, 넥타이도 댔습니다. 그런데 간밤부터 내리던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공용 자전거인 Indego Bike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병원에 도착하고 나니 온몸이 땀과 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하고 미리 공지 받은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Endocrinology department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니, 몇 블록 떨어진 Washington Square라는 외래 전용 건물로 2년 전에 옮겨 갔다고 하였습니다. 허탈해진 마음을 추스르고는, 다시 부슬비를 뚝고 늦지 않기 위해 뛰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도착하였을 때 듣게 된 것은, 제 교육을 주관하시는 attending chief께서 그날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가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 없이, 약간은 실망감을 안고 시작된 실습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경험은 첫날의 인상을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환자를 한 시간에 2-3명 정도씩 보는 진료 환경이 놀라웠고, 저에게도 매우 교육적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어로도 진료실에서 진료를 직접 해본 경험이 적었던 저로서는, 어텐딩 선생님들이 주소(chief complaint)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환자에게 묻고 답을 얻는 과정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자기 질환에 대해 박학다식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성 질환자가 많은 당뇨 및 내분비분과의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HbA1c, Lantus와 Humalog, sliding scale 등 의대생도 잘 모를법한 의학용어와 약의 이름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치 저의 교육을 위해 일부러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 같은 질문들을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들이 자기 질환에 대해 정통해질 수 있는 이유가 진료실에서 환자가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될 때까지 교육을 철저히 한 것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치니 약간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똑똑하면 더 똑똑했지, 지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환자들도 이렇게 정통해질 수 있을 텐데, 환자와 의사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에 도 쫓기는 한국의 진료환경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진료실에서 충분

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생겨나는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은 각종 정보들을 찾고 때로는 맹신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주부터 진료실에서 어텐딩 선생님보다 먼저 들어가 환자들의 병력을 청취와 신체 검진을 한 뒤 어텐딩 선생님께 저만의 임상 판단과 진단/치료 계획을 발표하고 어텐딩 선생님과 다시 들어가 진료를 마무리 하는 형태로 함께 진료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만에 한국인보다 미국인 환자를 더 많이 본 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익했던 점은 저만의 임상 판단과 진단/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의대생으로서 진단 기준이라던가 일차 선택 약(drug of choice)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도, 약을 어떻게 처방하고, 그 약을 언제 얼마만큼 먹거나 맞아야 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잘 알고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경험은 많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갑상선 호르몬인 L-Thyroxine의 경우 체중 당 1.7mg을 하루 1회 복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이나 커피 등의 음료와 함께 복용할 경우 흡수가 저해되기 때문에 이들과 30분 정도 떨어져 먹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Proton-pump inhibitor와 같은 약이나 철, 아연 같은 무기물 역시 흡수를 방해하므로 4시간 이상 떨어져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못지켜서 갑상선저하증이 지속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당뇨 및 내분비 분과의 특성상 환자들의 순응도(compliance)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약을 처방하는 것만큼 이와 같이 꼼꼼한 복약지도가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의대생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가 제대로 구해지지 않거나, 환자가 동의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실습을 돌면서 저와 제 친구들이 느낀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으로서 진료실이나 수술실에 들어와 있다는 당당함 보다는,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들어와 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혹시나 학생이라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들려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절대로 의대생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료실이든, 병동이든 상관없이 제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어텐딩 선생님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모두가 대학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수련병원에 왔으니 의대생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부담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미국에서처럼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시작하였을 때, 동의를 해주는 환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부인과나 비뇨기와 같이 환자들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분과에서의 실습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물음들 앞에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의 실습 동안 환자들은 100% 동의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대생들을 단순히 학생으로만 보기보다, 치료팀의 일원으로 봐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과 Sub-internship의 경우에는 실제 주치의처럼 검사부터 치료까지 환자 입원 기간 모든 오더를 레지던트와 함께 작성하고, 당직을 서기도 하는 등 미국의 의대생들의 생활은 한국의 의대생들에 비해 훨씬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면서도 의대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지켜 줄 수 있는 병원 환경이 되려면, 의대생들이 환자를 좀더 주도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 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놀라웠던 점은,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Pennsylvania hospital에서는 각자 집에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나, take out해서 가져 온 음식을 시간될 때 짹짹먹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진료 사이 비는 시간에 자기 사무실에서 혼자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점심시간처럼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 병원 식당이나 근처 대학로에 있는 식당으로 삼삼오오 몰려갔다가, 돌아올 때 커피 한 잔 take out해서 오는 사람들의 풍경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이라면 보통 직원들의 출근을 앞당기거나 퇴근을 미루는 사유가 되는 각종 회의나 컨퍼런스들도 점심 때 열리고,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아끼는 만큼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야근이 일상화되어 오히려 일과시간에 일을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우리나라의 일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 역시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미국에서의 선택실습(Elective course)은 "선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학교로 가야 할까? 어떤 분과를 돌아야 할까? 집은 어느 쪽으로 구해야 할까? 등등 사실 미국으로 선택실습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펜실베이니아 병원에 배정 받게 된 것을 통보 받은 뒤 Craigslist라는 웹사이트에서 병원이 위치한 Philadelphia Center City 쪽 sublet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2-3주간 하루에 이메일을 5-6통씩 보냈음에도 번번히 고배를 마시게 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away rotation을 많이 하는 미국 의대생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rotating rooms라는 웹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통해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고, 무엇보다 값이 매우 저렴한 sublet을 하나 찾을 수 있었고,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해 보니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털이 문제였습니다. 한 친구의 말처럼 정전기로 잠깐 붙여놓은 것 같은 그들의 털이 하루에도 한 솥 뭉치씩 빠지다 보니, 아무리 제 방 문을 닫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 털이 부유하지 않는 청정 공기를 마시거나 쉽

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중학교 때 강아지를 할아버지 댁으로 보내야 했던 이유도 제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도착 첫날 자려고 하는데 천식이 다시 도진 것처럼 숨쉬기가 곤란해지다 보니, 단순히 값싼 곳에 계약한 제 선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고, 그곳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무한에 가까운 기회와 무한에 가까운 정보들이 널려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항상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본과 4년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해외 선택 실습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알아보고 올걸, 좀 더 준비해서 올걸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강박관념이라는 것을 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있을 지도 모르는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길을 가지 않은 것에 불평하며 우울하게 있기 보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선택을 잘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최상급과 고효율, 빠른 성공만 추구하는 경쟁 사회에서, 오히려 조금 더디더라도 내 페이스 대로, 만족하며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월 정도 지나니 제 몸은 고양이 털들에 적응하였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지역만의 다양한 문화들과 상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이 '어느 과에 가고 싶어?' 로 바뀐 요즘, 다시 진료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저로서는 다른 친구들보다 4-5살이 많아 형, 오빠로서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선택실습을 하고, 동부에서 열린 유서 깊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에 참석하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더 고민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수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실제로 저희보다 몇 십 년 전에 걸어가신 선배님들을 뵈니,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함께 미국으로 선택실습을 온 친구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 수련의 장단점을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수련은 1) 교육적 측면이 우수하고, 2) 연구를 하고 싶을 경우 환경이 좋으며, 3) 삶의 질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비교해 1)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2)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수련 받을 확률이 떨어지며, 3) 소수인종이자 외국인으로서 사회적 참여가 제한되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장점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단점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한 분야의 대가가 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와 내 가족만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도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좋은 멘토, 좋은 동료, 좋은 사람을 만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G.P CORNER

다시, 꿈

필라델피아에서의 단상들

김 중 엽(서울의대 4학년)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1948 한용현 1949 고영철
- 1950 나수섭 한원봉 1951 이상하
- 1952 김은태 김정준 박종식 1953 강수상 이상봉
- 1954 김갑균 이동식 1955 노용면 양거영
- 1956 김신형 김운태 도상탁 박상기 서상철 유호준 주장춘
- 1957 강영섭 김용진 김일훈 서영환 임종식 임종원 정진목 차봉희 한성택
- 1958 김기태 김부근 김석희 김수산 김시한 김순옥 김시한 김운범 김학륜 류치열
문석면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신상균 신영철 유영호 이만택 이상문 이상철
이운순 이종국 이종용 이희성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은섭 김용덕 김한섭 나길진 박용순 반응균 방덕환
방석문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교탁 이종수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최혜숙
한달수 한성업
- 1960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병돈 박훈명 박형순 염극용
이광준 이덕송 이상일 이순환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전희근 정나섭 조재동
한성수 한일성
- 1961 계훈택 곽동린 김영철 김예흠 김유홍 김윤경 김화섭 박승균 박장생 박준환
박호성 서휘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재두 이재승 이준우 이한수 이희경
이회백 장성환 장태환 정두현 정철용 조은순 최공창 최용성 최태순 한수용
한혜원 황현상
- 1962 고희호 구정율 권익현 김석식 김한종 김호균 남성희 문상규 민경환 박종건
박진수 박찬형 송영두 오태요 유충국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상원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정정수 조명호
- 1963 권영조 고영희 김갑중 김계윤 김승태 김정일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학중
김현철 김홍열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박세록 송용덕 서경석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윤영욱 이수인 이승현 이재명 왕규현 윤영섭 윤진수 이기환 이능석
이범세 이병준 이종두 임춘수 장세곤 정관호 조열하 조하원 진병학 환광수
한기현 선우건영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라찬국 박세준 박한영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윤 강 유광현 유창남 윤흥기 이정은 이정필 이재풍 이주영
이중오 이홍표 임병훈 전희택 정인태 조성준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 1965 구경회 권오연 권태해 김길중 김대언 김덕진 김욱현 박수안 서좌일 서홍석
신백효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재진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장재찬
전영규 정길화 정재찬 조성구 지영환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최영인 한재은
홍수용 황규정
- 1966 광일성 김경세 김은한 김의신 김용재 김우신 김진수 김충규 남궁승 민발식
윤락승 이명희 이성근 장한교 정량수 조관상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육태식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준식 이태안 최무웅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주평 김진홍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운석 송창호 신규호 신용계 안금환 안세현 유우영 윤병인
이건일 이대용 이병순 이상훈 임공세 정재성 주광국 차재철 최 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병오*김운성 김중권 김창남 변영석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오선웅
양재관 육순재 유효윤 이홍오 임웅규 최홍일 최종진 천양곡
- 1970 김형달 노승국 문성길 박찬진 박홍식 방준재 장극기 송요준 여준구 유철희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재홍 김효순 김 훈
김창구 노재홍 박동수 박상효 배성호 서상헌 서정자 양성훈 오동환 온기철
이성길 이원택 이종일 장 철 조병선 조세진 최수강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권영조 김광호 고창범 김재석 김현배 박찬호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동일
이신재 정근희 최인섭
- 1973 나두섭 김정용 김천일 문대욱 민인기 박진섭 서인석 심완섭 이계석 임준형
- 1974 구재훈 권철수 김웅진 유영준
- 1975 김원정 김자역 박인영 전경배
- 1976 김대중 김정아 유영걸 정경화 최광휘 한승신
- 1977 강준희 김동훈 박일우
- 1978 최은복 허경열 1980 박남훈
- 1981 이선희 한창규 1982 서은희 차민영
- 1984 서귀숙 1985 박종효 임경욱
- 1988 이민재 1989 이선규 오무연
- 1991 강민종 홍정연 1994 안상훈
- 1998 강현선 1999 김정훈 이도은
- 2000 박은경 황필규 2001 김태근 정영태
- 2002 신동인 최태웅 2008 김혜리 박영수
- 2009 송경민 양현식 2011 김유리
- 2014 나중호 김나현

__은 2회 이상 납부하신 분. *는 VA

34th CONVENTION DONATION

- 노용면(55) 200 정진목(57) 100 김운범(58) 100 신상균(58) 125 이운순(58) 700
- 최창송(58) 500 강상진(59) 100 김병구(59) 240 권기홍(60) 1500 염극용(60) 50
- 강창욱(61) 200 박승균(61) 100 송영두(62) 200 이상무(62) 100 정정수(62) 490
- 조명호(62) 200 권영조(63) 200 김명준(63) 75 김태웅(63) 1000 조하원(63) 75
- 권정덕(64) 200 유 강(64) 100 이홍표(64) 1000 전희택(64) 300 허선행(64) 200
- 백길영(65) 500 최동욱(65) 400 최영인(65) 200 김충규(66) 200 이근웅(67) 400
- 이명희(66) 1000 이민우(66) 200 한영수(67) 300 강종웅(68) 500 고남규(68) 500
- 김경인(68) 1000 김명원(68) 1216 김영남(68) 1000 김상우(68) 1000 김정웅(68) 300

- 김주평(68) 1000 김희주(68) 200 노영일(68) 200 문광재(68) 375 서진석(68) 500
- 박용현(68) 13100 서운석(68) 500 송창호(68) 1200 신규호(68) 1000 신홍식(68) 1000
- 안금환(68) 100 안세현(68) 300 유우영(68) 300 윤병인(68) 365 이대용(68) 300
- 조승열(68) 60 차재철(68) 500 최 철(68) 2000 홍광신(68) 700 황훈규(68) 500
- 김중권(69) 1000 변영석(69) 500 신영찬(69) 200 안병일(69) 1000 윤효윤(69) 100
- 강태수(71) 100 곽승용(71) 500 김성환(71) 1500 김유식(71) 100 김일영(71) 500
- 배성호(71) 300 온기철(71) 500 장문석(71) 100 조병선(71) 275 고창범(72) 300
- 박찬호(72) 1000 석창호(72) 2000 이동일(72) 1000 오용호(72) 400 이기진(72) 300
- 김천일(73) 100 나두섭(73) 200 문대욱(73) 500 서인석(73) 500 심완섭(73) 300
- 이계석(73) 100 박인영(75) 100 최광휘(76) 200 백승원(79) 1000 한준구(82) 60
- 차민영(82) 3000 박정미(85) 50 이선규(89) 100 안상훈(94) 200 이도은(99) 50
- 김유리(11) 200 서울동창회(홍정웅 회장) 3000 서울의대 남가주지부 1000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1000 존백 펀드매니저 1000
- 서울의대병원(시계탑 광고지원비) 1000

GREEN PROJECT FUND

- 김은섭(59) 200 이종석(60) 75 김한종(62) 200 이용길(62) 100 정정수(62) 5000
- 이홍표(64) 200 허선행(64) 200 민발식(66) 100 이영균(67) 100 이상훈(68) 75
- 김병오(69)* 100 배성호(71) 100 온기철(71) 500 오용호(72) 200 서인석(73) 100
- 박인영(75) 200 김정아(76) 1000 한승신(76) 1000 박남훈(80) 200 서귀숙(84) 200
- 강민종(91) 25 강현선(98) 100 김정훈(98) 100 이도은(99) 150 박은경(00) 50
- 정영태(01) 50 최태웅(02) 100 양현식(09) 100 * VA

CHARITY FUND

- 최창송(58) 1000 강상진(59) 100 신두식(64) 100 홍선경(64) 100 최영자(66) 200
- 이영균(67) 100 김유식(71) 75 배성호(71) 175 민인기(73) 100 김웅진(74) 100
- 이도은(99) 50

SCHOLARSHIP FUND

- 김신형(56) 200 김운범(58) 100 강상진(59) 100 한성수(60) 100 권기홍(60) 500
- 강세부(61) 500 이희경(61) 4000 황현상(61) 75 이기범(62) 125 김계윤(63) 75
- 김태웅(63) 10000 한기현(63) 100 이홍표(64) 175 구경회(65) 300 이영균(67) 300
- 서운석(68) 500 배성호(71) 300 서정자(71) 375 오동환(71) 100 최수강(71) 100
- 김웅진(74) 100 유영준(75) 500 김자역(75) 500 서은희(82) 100 이도은(99) 350

GENERAL DONATION

- 오동렬(48) 3000 강수상(53) 200 노용면(55) 4075 서상철(56) 75 김석희(58) 200
- 강상진(59) 500 한성업(59) 75 박명근(60) 50 권순홍(61) 500 서영석(61) 100
- 장성환(61) 100 고희호(62) 1000 송용두(62) 200 김명준(63) 50 김태형(63) 75
- 김현철(63) 75 임춘수(63) 100 정인태(64) 100 최준희(64) 175 허선행(64) 100
- 권오연(65) 75 박수안(65) 75 정길화(65) 100 정량수(66) 75 최순채(66) 75
- 김성철(67) 75 문경웅(67) 200 이영균(67) 100 김희주(68) 300 이건일(68) 10000
- 서 량(69) 500 유효윤(69) 100 김형달(70) 100 김창구(71) 75 서상헌(71) 75
- 오동환(71) 100 심완섭(73) 50 유영준(74) 75 김동훈(77) 100 이도은(99) 150

DIRECTORY FUND

- 노인규(63) 75

작고하신 동문들의 부인들인 Mrs. 오동렬(48), 정낙섭(60), 강세부(61), 서영석(61), 서진석(68)께서 시계탑을 고맷게 받아보고 계신다는 소식과 함께 동창회비와 후원금 등을 보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고 권순홍(61) 동문 부인께서 시계탑 구독료 5백달러를 보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2018 한승신 회기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7~2018 MEMBERSHIP DUES

- 김신형(56) 최창송(58) 최종진(59) 염금용(60) 이상일(60) 유광현(65) 최동욱(65) 이소희(67) 임준형(73) 박종희(75) 박인영(75)

35th CONVENTION DONATION

- 최창송(58) 500 박종희(75) 175 한승신(76) 5000

CHARITY FUND 최창송(58) 1000

SCHOLARSHIP FUND 김신형(56) 100

GREEN PROJECT FUND 박인영(75) 200

한승신(46대) 회기 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입서

Annual Dues & Contributions (July 1, 2017~June 30, 2018)

MEMBERSHIP IN REGULAR	\$125.00
MEMBERSHIP FOR TRAINEE	\$ 50.00
35차 학술대회(06/18) DONATION	\$
GENERAL DONATION	\$
SCHOLARSHIP DONATION	\$
GREEN PROJECT DONATION	\$
CHARITY DONATION	\$
TOTAL	\$

Name: _____ Class: _____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SNUCAA / Your Dues and Contributions are Tax Deductible.